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조사표 개선 연구: 인지면접

최준영 • 박선희



21세기 데이터 혁명시대에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통계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통계는 개인과 기업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에 필수적인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통계청은 빅데이터의 활용,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의 연계 등과 같은 통계생산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응답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보다 정확하고 사용자친화적인 통계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청의 싱크탱크로서 전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통계개발원은 국내의 유일한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입니다. 통계개발원은 2006년에 창립한 이래 국가통계방법론과 증거기반 정책연구 분야에서 창의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조사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각종 추계기법과 관련된 통계방법론적 연구는 물론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현상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구집단 및 인구동하에 관한 분석연구 및 인구동태 관련 방법론 연구를 밀도 깊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이러한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통계개발원은 「2019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9년 연구보고서」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집세 물가지수 작성방안 연구 등 「행정자료 활용」관련 연구를 비롯하여 세대별 니스(NEES) 특성 분석 등 「인구・사회통계」기반 정책연구는 물론이고 통계기반정책평가 표준화 연구 등 「정책활용방법」관련 통섭적인 연구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방법론 분야에 있어서 동 연구보고서는 국민법의식조사 조사표 개선연구 등 「인지실험 기반 조사방법론 연구」및 차등정보보호 적용 실험 연구 등 「개인정보보호」관련 혁신적인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계개발원은 본 연구보고서가 데이터 사용자의 통계활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국가통계생산자의 혁신적인 통계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년이면 15주년을 맞는 통계개발원이 "국가통계의 싱크탱크"로서 대내외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가통계의 개선과 혁신적 개발을 위하여 제언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겸허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실용적이고 품질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위해 최선을 다한 연구진에게 따스한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내용 및 결과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통계청 또는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아님을 밝혀둡니다.

2020년 5월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H 09 2

전 영 일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제3장 인지면접
제4장 종합논의 및 결론57
참고문헌 60

요 약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는 벤처기업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벤처기업의 혁신역량 증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이다. 이 연구는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대비해 조사표를 개선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조사표의 객관화 및 응답 친화적 조사표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 접근을 위하여 전문가 FGI (Fo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고 인지면접(cognitive interviewing)을 통해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자 반응 중심의 검토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체적인 구조와 표현방식 중심으로 검토한 전문가 FGI 결과와 그 결과를 비탕으로 응답자의 응답과정 분석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인지면접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유하고 최종 개선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인지면접을 처음 적용한 연구로서 응답자 친화적인 조사표 설계 및 통계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용어: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조사표 설계, 전문가 FGI, 인지면접

제1장 서 론

중소베처기업부의 베처기업정밀실태조사1)는 베처기업 전반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정부 지원 및 혁신 벤처기업의 환경조성 정책 수립 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주요한 근거가 되는 조사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면 진입과 일본과의 무역 갈등으로 주력산업들이 침체위 기를 겪고 있으나, 이를 대신할 뚜렷한 미래성장 동력의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 다. 이에 우리나라 특유의 성장역동성마저 저해 받고 있으며 고용환경의 악화 및 장기적 인 경제성장 기대심리마저 저하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적 대안 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저성장 기조 타파 및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 벤처 기업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발견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벤처기업의 대응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벤처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확한 벤처기업의 실태파악이 필수적이다(김영수·이정민·이 재남·엄수지·서옥산, 2018). 이에 본 연구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조사표 객관화 및 베처기업 응답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베처기업 실태 현황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기본적인 연구방법으로 '전문가 FGI'2)를 통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조사 표에 대한 탐색적 접근과 조사표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평가하는 인지심리학 기법인 '인지면접(cognitive interviewing)'3) 기법을 활용하였다.

인지면접에 앞서 진행된 '전문가 FGI'는 과거에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대한 개편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진을 참가자로 모집4)하였으며 사회자가 사전에 준비한 기본 질문

¹⁾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는 승인통계(승인번호: 142003호)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내의 벤처확인기업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작성하여 매년 공표하고 있는 조사이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3 을 근거로 실시하는 조사이다(2018년 12월 말 기준 36,820개의 벤처확인기업 중 2000개의 표본을 대상으 로 표본조사 실시).

²⁾ 훈련된 사회자가 소수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참가자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에 준비된 기본 질문을 바탕으 로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벌이게 하는 것으로, 토론의 내용 가운데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방법 이다(김성재·김후자·이경자·이선옥, 2000).

³⁾ 인지면접(cognitive interviewing)은 조사표 평가방법의 하나로, 응답자가 질문을 읽고 응답하면서 떠오르는 사고의 과정을 말로 표현하고 이러한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조사표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Willis, 2005). 인지면접의 전제로 조사표는 응답자로부터 응답을 도출하는 일차적인 도구로써 응답의 정확성과 조사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박선희 박현주 박주언, 2018).

⁴⁾ 전문가 FGI는 조사표 설계의 초기단계에 실시하며, 관련 주제와 친숙한 개인으로 포커스 그룹을 구성해야 한다(Polly A. Phipps, Shail j. Butani와 Young I. Chun, 1995).

을 바탕으로 참가자 가 자유로운 의견 공유과정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FGI(Fous Group Interview)가 다른 조사표 평가 방법론과 구별되는 주요 특징은 참 가자 간 의견이 그룹 간 상호작용(interaction)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한 된 시간 안에 단일의 주제에 대해 많은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Willis, 2005)는 장 점이 있다. 즉 FGI는 조사표를 구성하는데 조사 주제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효율적 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기에(Groves et al., 2009) 본 연구에서도 벤처기업 현황을 이 해하고 실태조사의 특성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FGI'를 실시하 게 되었다.

이후 진행된 '인지면접'은 전문가 FGI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진행하 였으며,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조사에 응답한 참가자들 중 참가가 가능한 업체 및 해당 직원을 섭외하여 진행하였다.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가자가 조사표 작성과정을 마친 후, 면접원이 인지면접을 통하여 질문응답 과정에 대해 질의하는 두 단계의 독립적인 과 정을 기본 전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조사표 작성단계에서는 자기기입식으로 조사 표의 질문에 응답한 후, 두 번째로 작성된 질문의 응답내용에 대하여 회고식 프로빙 (retrospective probing)6)방식으로 진행하였다.7)

특히, 인지면접은 응답자와의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조사표에 대한 이해 및 해석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응답형성의 각 단계8)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를 진단한다(Hughes, 2004). 인지면접은 조사실무자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오차의 원천을 응답자로부터 직접 발견함으로써 조사표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중요한 의의 가 있다(박영실·박현정, 2012).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인지면접을 전체적으로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 다([그림 1]). 먼저,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협의 및 전문가 FGI 를 통하여 향후 조사 방향 및 조사목적을 고려하여 조사표를 분석한 후, 응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지적인 쟁점(issues) 항목을 중심으로 공통된 프로빙(probing, 캐어묻 기) 지침9)을 작성하고,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조사대상 중 사업체 및 직원을 섭외하여

^{5) 2019}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조사기간(2019년 9월~10월)과 동일한 기간에 참가자를 섭외하여 진행하였다.

⁶⁾ 회고식 프로빙(retrospective probing)은 설문 응답을 모두 마친 후 설문 당시를 회고하면서 진행되는 프로빙 이며, 설문 응답과정과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빙을 동시 프로빙(concurrent probing)이라 한다(박현주·이승희, 2017).

⁷⁾ 이 두 단계의 과정내용은 후술할 인지면접 적용의 3단계 중 중간 단계로서 '실시단계'의 내용에 포함된다.

⁸⁾ 응답형성과정은 질문 이해(comprehension of the question), 정보 인출(retrieval from memory of relevant Information), 판단(judgement), 응답 보고(response process) 순으로 이루어진다(Tourangeau, Rips와 Rasinski, 2000).

⁹⁾ 프로빙 지침은 면담 지침으로써 미리 질문을 정해두고 진행하는 표준화된 구조(standardized construction)의 일환으로 예측된 프로빙(anticipated probe)이다(박선희·박현주·박주언, 2018). 이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구조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두 번째 실시단계(인지면접 단계)에서는 대상 사업체를 직접 방 문하여 참가자가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표에 응답하게 한 후 면접원이 참가자의 응답내 용에 대하여 이미 작성된 프로빙 지침을 기준으로 질의응답과정에서 탐색질문을 추가 하는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진행과정의 내용에 대하여 면담자는 핵심 내용을 기록10)하면서 진행하였으며 참가자들의 동의하에 녹음기기를 활용한 녹 음도 병행되었다. 이 후 세 번째 분석단계에서는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녹취록을 작 성하고, 작성된 녹취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참가자의 조사표 응답내용 및 면접원과의 면담내용에서 도출된 응답자의 오류 발생 가능성과 응답과정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인지면접 적용의 3단계 : 준비단계, 실시단계, 분석단계

연구대상인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조사표'는 총 2종의 조사표11)로 구성되어 있으 나. 개인사업자용 조사표의 구성이 법인기업용 조사표 내용 중 일부 질문 문항이 삭제된 형태였기 때문에 법인기업용 조사표를 기준으로 연구 전반이 진행되었다. 물론 개인사 업자 형태의 사업체(벤처기업)도 '개인사업자용 조사표'로 별도의 인지면접을 병행하였 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개인사업자 특성도 인지면접 결과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조사표 검토 시 전문가 FGI 및 인지면접에 과정에서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체 조 사 조사표 디자인 가이드라인'12)에 따라 도출된 내용도 제언을 통해서 연구결과에 반영하 고자 하였다. 이 부분은 인지면접과 별개로 작성되어야 하나. 조사표 구성의 일반적인 내

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탐색적 질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반구조화'된 형태의 인지면접을 진행 하였다.

¹⁰⁾ 면담자가 참가자와의 면담내용을 기록하며 진행하는 것은 참가자의 응답내용(조사표에 답변내용)과의 비교 및 추가 탐색 질문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과정이다.

¹¹⁾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조사표는 총 2종으로 법인기업용 조사표와 개인사업자용 조사표로 구성되어 있

¹²⁾ 미국 센서스국의 Morrison et al.(2009)이 디자인 이론과 인지면접 방법을 사용하여 도출한 '사업체 조사 조사표 디자인 가이드라인(18개 제시)'으로 국내 사업체조사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경험적인 검증이 필 요하나, 일반론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인지면접 결과와 연계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반영한 예로, 페이지 및 질문의 레이아웃 형태의 일관성 유지, 유사한 보기항목의 근접한 정렬, 보기항 목 및 각주설명의 시각적인 효과 사용, 지시문은 적절한 부분에 사용하고 별도 제시 자제, 매트릭스 사용 자제 등이 있다).

용으로 인지면접과 연결하여 검토하였기 때문에 인지면접 결과와 함께 제시하였다.

전문가 FGI 및 인지면접의 결과로 도출된 제언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유하고자하였으며,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은 [그림 2]와 같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서는 해당 연구과정의 산물로서 연구과정 전체의 최종단계에 해당한다.



[그림 2] 연구과정 전체 흐름도

제2장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1. 연구 방법

가. 참가자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조사표에 대한 인지면접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 조사와 달리 각 '사업체(벤처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각 사업체의 조사표 작성자에 대한 인지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탐색적 접근으로 전문가 FGI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벤처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조사의 목적에 부합한 형태로 조사표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표 개선의 기본 전제가 되는 선행 작업이었다.

전문가 FGI를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조사표의 개선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기 위해 벤처협회에서 2018년 12월에 진행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개편 연구의 참가자 중심으로 모집하게 되었다. 가장 최근에 조사표 개선연구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문항의 히스토리부터 각 문항에 대한 결과 분석방향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조사표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 그룹은 총 4명으로, 모두 경영학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이면서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로서 남자 3명, 여자 1명으로 구성되었다. 4명 모두 FGI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교환을 나누면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3 구체적인 전문가 FGI 참가자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¹³⁾ 전문가 FGI는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참석이 어려운 전문가는 배제 하였으며, 연구기간의 시간상 제약으로 미참석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델파이기법' 등은 적용하지 않았다.

참가자	성별	연령(만)	전공		직업	비고
1	남	48세	경영학 전공	박사	교수	직접 참석
2	여	43세	경영학 전공	박사	교수	직접 참석
3	남	41세	경영학 전공	박사	교수	직접 참석
4	남	43세	경영학 전공	박사	교수	직접 참석

〈표 1〉 전문가 FGI 참가자 특성

나. 연구 절차

전문가 FGI는 사전에 E-mail을 통해 '사전 질의서'와 '조사표'를 송부하여 해당 조사표 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친 후, 2019년 9월 6일 통계개발원 내 조사표 연구센터의 독립 된 FGI룸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되었으며 분석에 활용하고자 참가자들의 동의하에 녹음과 녹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사회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사전 업무협의를 통하여 조사목 적 및 조사방향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전문가 FGI를 위한 기본 질문들을 준비하였고 전문 가 참가자 그룹은 사회자의 진행 하에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원 활한 진행을 위해 사회자는 발언 시간을 제한하여 1~2명의 참가자만 발언의 주도권을 갖 지 않도록 하였다. 아래의 <표 2>에 제시된 Haraldsen의 FGI 가이드라인(2003)14)을 참고하 여 전문가 FGI를 전체적으로 사전 준비-진행-결과 분석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표 2〉 Haraldsen(2003)의 FGI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문가 FGI의 진행 절차

FGI 순서	내 용	전체 진행
안내	조사표 및 사전 질의서의 E-mail 발송	사전 준비
 소개	토론 주제 및 진행 과정 안내	
	참가자 자기 소개 : 상호 공감대 형성 목적	
	조사표 전반적인 응답부담 평가 및 토론 - 참가자의 발언 시간 제한	진행
토론 	※ 토론의 토픽- 가독성: 레이아웃, 조사표 길이, 질문 순서 등- 질문의 문제: 용어 이해, 계산, 응답 형식의 어려움	

¹⁴⁾ Haraldsen, G.의 Searching for Response in Focus Group with Business Respondents(2003)에서의 사업체조사 FGI 일반이론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전문가 FGI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은 일부 삭제하고 전문가 FGI의 전체 진행 순서를 정리(재구성)하였다.

FGI 순서	내 용	전체 진행
	내용적 타당성: 해당 질문의 정책적 유용성기타: 한 사업체 내 조사표 작성자 수 등	
개념 분석 및 연결	토론 결과의 최종 정리 - 응답부담 가능성 파악 - 응답부담 요인별 해당 요인 분석 - 응답부담 경감 방안 도출	결과 분석

법인기업용과 개인사업자용으로 구성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2종의 조사표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조사표 구성 전반 및 세부적인 표현방식(질문형태, 용어 사용, 보기항목의 응답범주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다. 우선 법인기업용 조사표 중 심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개인사업자용 조사표는 법인기업용 조사표에 해당 내용이 모 두 포함되어 있어서 일부 특정 문항에 대해서만 개인사업자 벤처기업(사업체)의 응답특성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졌다. 조사표에 대한 검토방식은 <응답 요령>의 5번 설명(설문지는 첫 페이지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기 바랍 니다.)에 맞추어 조사표의 처음부터 각 항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진행된 전문가 FGI의 결과에 대한 분석단계에서는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녹취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녹취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지면접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다. 연구 대상

전문가 FGI의 목적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조사표의 개선 방향 도출에 있었으므 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조사표」5)'가 주요 연구대상이 되었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 사 조사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총 2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법인기업용 조사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물론 개인사업자 벤처기업(사업체)의 경우 해당 질문의 내용이 다르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거나 별도의 부연 설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병행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FGI의 연구결과로써 세부적인 항목별로 도출된 제언사항은 인지면접 결과와 함께 개선 사항으로 제언되었으며, 여기서는 검토된 주요 내용 중심으로 주제별로 연구 결과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인지면접 결과와 중복되는 내용은 인지면접 결과에 서 자세히 후술하였다.

¹⁵⁾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인지면접의 조사표에서 후술하였다.

2. 연구 결과

- 가. 응답자 중심의 표현방식(용어설명 등) 검토
 - 1) 응답 요령의 보완

<응답 요령>에 법인 기업인 경우에 대표이사나 임원 및 관리자(과장급 이상)가 조사 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응답 요령 2번의 해당 내용), 실제로 인사/총무, 재무/회계, 전략/기획, 홍보/마케팅/영업, 연구/개발, 생산/품질, 유통/물류의 다양한 파트의 질문으로 조사표가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 작성할 수밖에 없는 조사표의 특 성상 여러 명이 조사표를 작성할 경우 조사표의 정확성 제고 및 책임 있는 답변을 유도 하기 위해 책임자가 작성자로 기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응답 요령 >

- 1. 법인 기업체 전체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기업)
- 2. 응답은 반드시 귀사의 인력, 기술, 내수, 수출 등 경영의 전반적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 **대표이사나 임** 원 및 관리자(과장급 이상)</mark>께서 직접 작성하셔야 정확하게 기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3. 응답자 편의를 위해 **먼저 설문지를 인쇄하셔서 각 설문지 파트 별 응답 대상자와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하** 시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응답 도중에 질의사항이나 시스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 겠습니다.

설문내용 문의: NICE평가정보(주) 정보사업실 최정호, 02-3771-1450

- 5. 설문지는 첫 페이지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u>온라인 응답의 경우 설문 중 불가피하게 중단해야 할 경우는 다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후 문항부터 다</u> 시 시작할 수 있사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림 3] 응답 요령

즉 2번의 내용을 "응답은 반드시 귀사의 인력, 기술, 내수, 수출 등 경영의 전반적 상 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 대표이사나 임원 및 관리자(과장급 이상)께서 직접 작성하셔야 하며 조사표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책임자(관리자)를 작성자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로 수정하거나 응답 요령 3번의 내용을 "응답자 편의를 위해 먼저 설문지를 인쇄하셔서 각 설문지 파트별 응답 대상자와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하시기 바라며 책임자(관리자)를 작성 자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추가로 응답 요령 4번의 내용은 오히려 5번이나 6번보다 후순위로 배치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실제로 <응답 요령>은 조사표에 대하여 응답자의 "직접적인 작성 요령" 이므로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요령은 가장 나중에 후술할 필요가 있 어 보이기 때문이다.

2) 용어의 검토 및 설명 추가

경영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인 경우 별도의 설명이나 대체 없이 그대로 조사표에 사용되어 있는데, 해당 조사표에 답변하는 응답자의 용어 이해도가 낮은 경우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용어의 대체나 내용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로는 '성숙기', '비제조기업', '해외', '국제규격' 등이었다. '성숙기'는 '경쟁이 심화되고 성장이 안정되는 단계'로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로 '경쟁이 심화되고 성장이 안정되는 단계'에 대해 모순된 내용으로 이해 하거나 '경쟁이 심화'나 '성장이 안정'의 어느 한쪽에 집중하면 다른 답변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설명 내용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경쟁이 심화될수 있으나 성장은 안정되는 단계' 정도로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추가로 부정적 의미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성장이 안정화 되는 단계'로 설명의 내용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2-3. 제조 및 비제조	① 자체 제조 ③ 전부 외주(아웃소싱)	② 제조+ 외주(아웃소싱%) ④ 비제조기업
		@ 113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그림 4] 비제조기업

'비제조기업'은 단순히 제조를 하지 않는 경우(제조의 반대 개념)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는 "서비스 기업" 혹은 "도소매 기업" 등으로 각각 개별적인 해석이 가능한 용어이다. 따라서 '비제조기업'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질문의 의도에 맞게 '비제조기업(서비스제공기업)'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			
B2-7. 창업 당시 귀사의 목표시장은?	① 국내	② 해외	③ 국내 + 해외	

[그림 5] 국내와 해외

또한, 조사표 전체적으로 '국내'에 대비되는 용어로 '해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국외'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 물론 다양한 사용 배경이 있을 수 있으나, 응답

자가 직관적으로 읽고 응답해야 하는 조사표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내'와 대비되는 용어로는 '국외'가 더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E3. 귀사가 획득하고 있는 해외특허나 국제규격 등은 무엇입니까?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해외특허 ② 해외유명규격(UL, CE, CCC 등) ③ 해외특허·국제규격 없음

[그림 6] 해외유명규격과 국제규격

조사표에 '규격'과 관련된 용어로 '해외유명규격', '국제규격', '현지시장 규격'이 있 다. '해외유명규격'은 조사표의 E4문항에서 'UL, CE, CCC 등'으로 일부 예시가 제시되 어 있으나, '국제규격'의 예시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해외유명규격'과 '국제규격'의 의 미 차이가 모호하고 E3의 문항 구성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 다른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가 모호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해외유명규격'과 '국제규격'을 별도의 다 른 의미로 사용한 것이면 포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기항목에 '국제규격'을 별도로 예시와 함께 제시16)하여야 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이면 '해외유명규격'이나 '국제 규격'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하나의 용어만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용어 설명이 필요한 '스마트 공장',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 터', '비즈니스 모델', '크라우드 펀딩',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용어설명이 없어 응답자 가 작위적으로 해석하거나 해석이 어려울 경우 무응답 할 수 있으므로 용어설명이 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용어설명은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응답오류를 방지 하는 기능으로 통계품질제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나. 의식의 흐름에 맞는 질문문항 및 보기항목의 재배열 검토

1) 질문 문항의 재배열

첫째, A2의 '기업의 일반현황'에서 '창업연도', '기업성장단계', '제조 및 비제조 기업 여부' 이외에 별도로 '스마트공장 도입 의향'과 '코스닥 등 상장여부 및 계획' 질문은 부 적절할 수 있다. 우선 '스마트공장 도입 의향' 질문은 '스마트 공장의 도입여부'의 선행 질문이 필요하며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향후 도입 의향이 있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질문이 소목차 'E. 기술 및 산업재산권 현황'에 위 치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응답자가 동일한 내용의 질문들에 응답함으로써 응답부담이

¹⁶⁾ 보기항목의 포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지면접의 주요 결과에 제언과 더불어 후술하였다.

A2-1. 창업년도(법인설립년도)	년[4자리]				
	① 참업기	② 초기성장기	③ 고도성장기	④ 성숙기	⑤ 쇠퇴기
A2-2. 기업성장단계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준비하는 단계	매출이 처음	제품 및 시장이 확대되고 매출이 급증하는 단계	경쟁이 심화되고 성장이 안정되는 단계	기업 활동이 정체되거나 칠수가 고려되는 단2
A2-3. 제조 및 비제조	① 자체 제조 ③ 전부 외주(아웃소싱)	② 제조 ·④ 비제	- 외주(아웃소성 조기업]%]
A2-4. 귀사는 스마트공장 도입의향이 있습니까?	(I) oil	② 아니오			
A2-5. 거래소나 코스닥 등 상장여부 및 향후 계획 여부	① 현재 상장기업 상장년도년 상장시장 ① 코 스 피 ⓒ 코 스 닥 ⓒ 코 넥 스 ② 현재 추진 중 ③ 추진계획 있음 ④ 추진계획 없음				

[그림 7] 스마트공장, 코스닥 등 상장여부 및 향후 계획 여부 문항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코스닥 등 상장여부 및 계획' 질문은 소제목 'D. 재무 및 자금 현황'의 D8의 '스톡옵션' 질문과 연계하여 질문하면 응답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응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G5에서 G5-1에서는 '지사 및 지점 설치 지역'을 묻고 G5-2에서는 '직·간접 수출지 역'을 묻고 있는데, 이는 앞선 선행 질문인 G4에서 '직·간접 수출 여부'를 묻고 G4-1에서 '해 외지사나 지점 설치 여부' 묻고 있는 순서와 상반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선행 질문과 후행

〈표 3〉 선행 질문과 후행 질문의 다른 배치순서

선행 질문	[직접수출: 해외 시장에 완제품 직접 수 [간접수출: 부품이나 중간재 판매 후,	 ○ 직접수출+간접수출 ④ 수출] 메입처에서 제품완성 후 해외수학 + 있는 경우) ①,②,③만 용답 가능, 해 경우만) 귀사는 해외에 지사나 	수출 없음 ☞G6에 응답 출] 외 배출이 0이면 ② 응답후 G6로 이동
후행	G5. (☞G4에서 ①, ②, ③ 또는 G4-1에서 (어디입니까?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복수구분		
후행 질문	어디입니까?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복수	수용답, 기타의 경우 지역명 기업> <보기>에서 해당번호 기업 (복수용답	

질문이 상반되게 배치된 질문 문항들은 응답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응답자가 문 제를 잘못 인지하여 응답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순서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2) 보기항목의 재배열

K3-1. 아래 보기 중 귀사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책임은	무엇입니까 ? (), () (복수응답)
① 물질 기부/기증	② 재능 기부	③ 공유가치창출	(CSV)*	
④ 지역사회 봉사활동	⑤ 후원 활동	⑥ 기타()	⑦ 없음
* 공유가치창출(CSV):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여 가치의 총량	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적 활동

[그림 8] 사회적 책임

K3-1의 '사회적 책임' 문항은 위 [그림 8]과 같이 보기항목 순서가 단순 나열식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응답자가 직관적으로 그 경중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로 보기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응답자가 예측하기 쉽게 보기항목을 낮은 수준의 기여단계에서 시작해서 높은 수준의 기여단계로 경중에 따라 재배열할 필요가 있다. 즉, '물질 기부/기 증'에서 '재능 기부', '지역사회 봉사활동', '후원 활동', '공유가치창출(CSV)' 순으로 배 치하여 응답자의 직관적 이해와 응답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 보기항목 응답범주의 포괄성 및 상호배타성 문제 검토

1) 보기항목의 포괄성 문제

```
E1-1. 각 분야별로 귀사의 주력제품(서비스)과 관련성이 가장 큰 기술은 무엇입니까? <3개까지 응답 가능>
                                                          (B) 퍼테크
① 드론
                                        10 인공지능(AI)
                                                          (6) 블록체인
                    ⑥ 스마트 공장
② 자율주행차
                                        ① 사물인터넷(IoT)
                    ⑦ 지능형 로봇
                                                          (7) 020(공유경제)
                                        (2) 클라우드
③ 스마트 팜
                    ® 3D프린팅
                                                          (8) 스마트 헬스케어
④ 에너지 신산업
                                        ③ 빅데이터
                    ⑨ 지능형 반도체
                                                          ⑩ AR/VR(증강/가상현실)
                                        040 5G
⑤ 스마트 시티
                                                          20 신소재(첨단소재)
※ 중소벤처기업부의 4차산업혁명 분야 분류 참고함
₩ 스마트팜: ICT를 농업과 축산업 등에 접목하여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농장
※ 애너지 신산업: 애너지 수요관리 등 애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비즈니스군
※ 스마트 시티: 도시에 ICT, 빅테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도시모델
※ 스마트 공장: 생산 전체 과정에 ICT를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유연생산공장
※ 지능형 반도체: IT융합제품의 지능형 서비스를 수행하는 SW와 SoC가 융합된 지능형전자부품
```

[그림 9] 주력제품(서비스)과 관련성이 큰 기술

주력제품(서비스)과 관련성이 가장 큰 기술을 선택하는 문항([그림 9])에서, 최근 다 양한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이 창출되는 상황 속에서 벤처기업의 특성상 신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위의 보기항목 예시에서 선택이 어려울 수 있으

나, 이에 대한 고려가 없으므로 이러한 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추가 항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타()'항목의 추가를 들 수 있다.

또한, '세계/국내 최고수준 기업의 기술력과의 비교 수준' 관련 문항에서도 보기항목의 포괄성 문제가 발견되었다. '60% 미만'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보기항목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는 '벤처확인기업¹⁷)'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므로 기술력 수준이 60% 미만인 경우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부합하게 구성된 보기항목으로 볼 수 있겠다.

E6-1. 귀사의 주력제품이나 서비스의 기술력 수준은 세계 최고수준 기업의 기술력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세계 최고수준 (100% 수준)	세계 최고기술과 동등한 수준 (90%~99% 수준)	세계 최고기술에 근접한 수준(80%~89%)	세계 최고기술보다 다소 뒤처진 수준(70%~79%)	세계 최고기술보다 낮은 수준(60%~69%)
1	2	3	4	5

E6-2 귀사의 주력제품이나 서비스의 기술력 수준은 국내 최고수준 기업의 기술력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국내 최고수준 (100% 수준)	국내 최고기술과 동등한 수준 (90%~99% 수준)	국내 최고기술에 근접한 수준(80%~89%)	국내 최고기술보다 다소 뒤처진 수준(70%~79%)	국내 최고기술보다 낮은 수준(60%~69%)
1	2	3	4	5

[그림 10] 세계/국내 최고수준 기업과의 기술력 비교 수준

2) 보기항목의 상호배타성 문제

보기항목의 상호배타성 문제는 개별문항별로 분석한 인지면접 결과와 동일하므로 인 지면접의 결과에서 후술하였다.

라. 다의적 의미로 해석 가능한 용어의 변경 검토

'관리'는 '대표이사나 창업자의 특성', '총 종사자의 인력구성' 질문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경영관리'와 '단순 관리업무' 등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용어로 질문의 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관리'를 '경영 관리' 혹은 '단순 관리업무'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¹⁷⁾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의 벤처확인유형 5가지 중 '예비벤처기업'은 제외하고 4가지 벤처기업의 경우('기술평가대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 기타

그 밖에 중복 답변 가능성이 있는 질문 문항에 대하여 복수응답 가능여부 표시, 다항 선택 질문 중 서열식(1순위·2순위)으로 변경이 필요한 문항의 질문형태 변경, 보기항목 및 용어설명의 문구 수정 및 단어 변경, 이동 지시문의 검토, 각 문항별 세부표현의 수 정 보완 등에 대한 내용은 후술할 인지면접의 결과에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인지면 접 결과에서 세부 항목별로 그 내용을 제언 사항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제3장 인지면접

1. 연구 방법

가 조사표 구성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는 사업체 조사로서 단순히 벤처기업의 현황만을 조사하지 않고, 벤처기업 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세부 사업체(벤처기업)별로 벤처환경 전반에 대한 인식조사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체 고유의 정보(사실)를 조사하는 문항과 사업체 고유의 상황이나 미래 성장전망성 등에 대한 응답자 개인의 의견(판단)을 조사 하는 문항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조사표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 평가가 요청되었으며 이에 인지면접을 통한 조사표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조사표는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대한 세부 업종 개편 과정에서 조사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법인기업용 조사표와 개인사업자용 조사표로 세 분화되었다. 따라서 법인기업용 조사표와 개인사업자용 조사표에 대하여 그 대상에 맞게 인지면접을 진행하였다. 다만 개인사업자용 조사표의 경우에는 법인기업용 조사표의 내용 중 일부 문항의 삭제를 통한 축소된 문항수로 구성되어 있을 뿐 질문 문항의 형태나 구조 가 법인기업용 조사표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인기업용 조사표를 기준으로 정리 하여 설명하도록 하였다. 물론 조사표의 내용적 측면에서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 간에 해 석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개인사업자 특유의 응답 오류 발생의 경우는 그 과정을 확인하여 인지결과에 반영하고자 하였다.18)

<표 4>는 인지면접에서 사용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법인기업용 조사표의 조사항 목19)을 정리한 것이다. 즉 개인사항(5개), 기업 일반현황(2개), 대표자 및 창업자 특성(2

¹⁸⁾ 개인사업자용 조사표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벤처기업을 방문하여 별도의 인지면접을 진행(프로빙 진행) 하는 과정(2/15명)에서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후술할 인지면접의 주요 결과에 반영하였다.

개), 인력 및 조직 현황(5개), 재무 및 자금 현황(8개), 기술 및 산업재산권 현황(7개), 혁신 및 역량현황(4개), 마케팅, 해외 진출 현황(6개), 제휴 및 협력 현황(2개), 벤처캐피탈 및 M&A 현황(6개), 공정거래 질서 현황(4개), 벤처기업 지원제도 현황 및 교육, 인프라, 경영애로사항(5개)의 12개 부문별로 56개의 세부 부문에 관하여 매트릭스 형태(행렬식 질문형태)의 162개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조사표 조사항목(법인기업용 기준)

부문((12개)	세부 조사항목(162개)
응답지	가 정보	1. 작성자 성명, 2. 소속 부서, 3. 작성자 전화번호, 4. 작성자 이메일, 5. 작성자 지위
A. 기업 일반 현황	응답 기업 정보	1. 회사명 2. 사업자 등록번호 3. 법인 등록번호 4. 벤처확인 유형 5. 회사주소 6. 주산업이 어떤 업종에 속하는지(KSIC 코드번호) 6-1. 1단계 업종분류(대분류) 6-2. 2단계 업종분류(중분류) 6-3. 3단계 업종분류(소분류)
기업 일반 현황	일반	 창업연도(법인설립연도) 기업성장단계 제조 및 비제조 스마트 공장 도입의향이 있는지 거래소나 코스닥 등 상장여부 및 향후 계획 여부
B. 대표자 및 창업자 특성	대표 이사 특성	1. 현 대표이사가 창업자인지 2. 대표이사 성별 3. 대표이사 연령(현재) 4. 대표이사 최종학력(현재) 4-1. 대표이사 전공 5. 대표이사 이전 근무지 6. 대표이사의 이전 직장에서의 업무경력 분야

¹⁹⁾ 음영처리된 조사항목은 개인사업자용 조사표에서는 제외된 항목으로, 개인사업자용 조사표에 대한 조사 항목은 음영처리된 문항을 제외하고 이해하면 되므로 본 연구서에서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참고로, 개인사업자용 조사표의 세부 문항수는 87개로 구성되어 있다).

	창업자 특성	1. 창업자 성별 2. 창업 당시 창업주의 연령(만 나이로 계산) 3. 창업주의 창업 당시 최종학력 3-1. 창업주의 창업 당시 전공 4. 창업주의 창업 이전 근무지 5. 창업주의 창업 이전 업무경력 분야 6-1. 창업 방식 (형태) 6-2. 창업 방식 (인원) 6-3-1. 창업자의 주요 역할 6-3-2. 공동창업자의 주요 역할 7. 창업 당시 창업자의 현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경험년 수 9. 창업주의 과거 창업 경험 유무 9-1. 창업주가 과거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 그 결과
	인력 현황	1. 총 정규직수 2. 총 비정규직수 3. 총 종사자수
C.	총 종사자 인력 구성	2018년 말 직종별 인력구성
인력 및	학력별 구성비	고용 인력의 학력별 구성비
조직 현황	신규 채용	 2019년 하반기 및 2020년 신규채용 의사 유무 및 인력 수 1-1.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신규채용 인력의 희망 학력 1-2. 채용 계획이 없는 경우, 주된 이유
	구인이 어려운 직무 및 직급	1. 현재 가장 구인하기 어려운 직무 2. 현재 가장 구인하기 어려운 직급
D. 재무	지분 구조	2018년도 12월말 지분 구조
세구 및 자금 현황	재무 상태표	1. 2017, 2018년도 12월말 기준 자산 총계 2. 2017, 2018년도 12월말 부채 총계 3. 2017, 2018년도 12월말 자본 총계

	손익 계산서	1. 2017, 2018년도 12월말 매출액 2. 2017, 2018년도 12월말 영업이익 3. 2017, 2018년도 12월말 금융비용(이자비용) 4. 2017, 2018년도 12월말 당기순이익
	매출 구조	2018년도 국내·외 매출구조
	정책 지원금 자금 명험 금액 금액	 2018년도 R&D자금(출연금) 경험 유무 및 총 금액 2018년도 융자(정책자금) 경험 유무 및 총 금액 2018년도 보증서 지원(보증서발급 대출) 경험 유무 및 총 금액 2018년도 기타 지원(창업사업화 및 수출지원 등) 경험 유무 및 총 금액
	신규 자금 조달 규모 및 방법	2018년도 신규자금 조달 규모 및 방법
	총 투자액	2018년도 각 투자처별 총 투자액
	스톡 옵션	 스톡옵션에 대한 상황 스톡옵션 실시의 주요 목적 스톡옵션을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
	4차 산업 혁명	1. 4차 산업혁명과 관계 유무 1-1. 주력제품(서비스)과 관련성이 가장 큰 기술
	산업 재산권	1. 현재 등록 보유 중인 국내·외 산업재산권 건수 2. 현재 출원 중인 국내·외 산업재산권 건수
E. 기술 및 산업 재산권	해외 특허 및 국제 규격	획득하고 있는 해외특허 및 국제규격
현황	제품 및 서비스 구조	해당되는 제품 및 서비스 구조
	세계 유일 기술 보유	주력제품 및 서비스의 세계 유일의 기술 보유 유무

	기술력 1. 세계 최고수준 기업과 비교한 주력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력 수준 비교 2. 국내 최고수준 기업과 비교한 주력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력 수준						
	연구소 및 전담 부서 보유	자체 연구개발 관련, 보유하고 있는 기술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역량 수준	1. 경쟁사와 비교 시, 개발 역량(기술, 디자인, 신제품개발 역량)의 수준 2. 경쟁사와 비교 시, 제조 역량(생산 및 품질 역량)의 수준 3. 경쟁사와 비교 시, 마케팅 역량(마케팅, 브랜드, 시장기회 분석 역량)의 수준					
F. 혁신 및 역량	경쟁 전략 초점	1. 원가우위 수준 2. 제품 고부가가치화 수준					
현황	비즈 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성장 전망성	장기적인 성장 전망성					
	자체 브랜드	1. 자체 브랜드 보유 유무 1-1. 자체 브랜드 보유 개수					
	영업 및 마케팅	영업 및 마케팅 방식					
	시장 점유율	1. 2018년 기준 주력제품의 국내 시장점유율 2. 2018년 기준 주력제품의 해외 시장점유율					
G. 마케팅, 해외	해외 사업 방식	1. 2018년 기준 해외 사업 방식 1-1. 해외 지사 및 지점 설치 유무					
진출 현황	해외 시장 진출 및 직·간접 수출 지역	1. 해외 시장 진출(지사 및 지점 설치)지역 2. 직·간접 수출지역					
	해외 수출 및 진출의 애로 사항	2018년 기준 해외수출 및 진출과정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					

H. 제휴 및	협력 활동 유형 및 도움 정도	1. 선호하는 협력 기관 선택(메인 파트너) 2. 경험한 제휴 및 협력활동 유형 3. 타기관의 협력활동의 도움 정도
호 협력 현황 	협력 의사와 희망 협력 분야	 협력 의사가 있는 기관 협력 희망 분야
	크라 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 경험 유무
	엔젤 투자자 및 액셀러 레이터	엔젤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 경험 유무
I. 벤처 캐피탈 및 M&A 현황	밴처 캐피탈	1. 벤처캐피탈(투자조합 포함)로부터 투자 경험 유무 1-1. 투자 받은 벤처캐피탈(투자조합 포함)의 역할 (2. 벤처캐피탈(투자조합 포함)로부터 도움분야 및 도움 정도) 2-1. 경영관리 지도 또는 경영자문 2-2. 이사회 참여 의사결정과정 감독 관여 2-3. 제품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또는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지원 2-4. 관련 기술정보 소개 또는 제공 2-5. 지적재산권/특허권 관련 법률지도 2-6. 은행/금융 기관소개 알선 2-7. 필요 전문 인력 소개 또는 헤드 헌팅
	M&A 의향	다른 업체를 인수합병(M&A)할 의향이 있는지 유무
	M&A 응할지 의향	다른 업체의 인수합병(M&A)에 응할 의향이 있는지 유무
	M&A 환경 개선	벤처기업의 M&A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것
J. 공정 거래 질서 현황	단가 변동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소속사에 매출하는 경우, 2018년도 대비 2019년 납품 단가의 변동 유무 및 변동 폭(%) 대기업에 납품하는 1, 2차 벤더에 매출하는 경우, 2018년도 대비 2019년 납품 단 가의 변동 유무 및 변동 폭(%)

	•	
		 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매출하는 경우, 2018년도 대비 2019년 납품 단가의 변동 유무 및 변동 폭(%) 4. 해외 기업에 매출하는 경우, 2018년도 대비 2019년 납품 단가의 변동 유무 및 변동 폭(%)
	이익률	1. 대기업 또는 대기업그룹 소속사에 매출하는 경우, 현재 이익률 및 희망 적정 이익률 2. 대기업에 납품하는 1, 2차 벤더에 매출하는 경우, 현재 이익률 및 희망 적정 이익률 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매출하는 경우, 현재 이익률 및 희망 적정 이익률 4. 해외 기업에 매출하는 경우, 현재 이익률 및 희망 적정 이익률
	불공 정 거래	 대기업 또는 대기업그룹 소속사에 매출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경험 유무 및 심각성 정도 대기업에 납품하는 1, 2차 벤더에 매출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경험 유무 및 심각성 정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매출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경험 유무 및 심각성 정도 해외 기업에 매출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경험 유무 및 심각성 정도
	거래 시 애로 사항	 기업 간 거래 시, 기술 관련 애로 기업 간 거래 시, 금전 관련 애로
K. 벤처 기업 지원 제도 현임	벤처 확인 제도의 혜택 정도	1. 기술개발 촉진효과 2. 기업 이미지 제고 등 광고효과 3. 세제혜택 효과 4. 우수인력 확보에 유리 5. 입지 선정 시 유리 6. 자금조달 및 투자 유인효과 7. 정부지원제도 참여에 유리 8. 창업 관련 규제 완화 효과
및 교육, 인프라, 경영 애로 사항	벤처 인프라 수준	 1.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2. 벤처관련 규제 완화 3. 창업 및 기업가적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4.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사회 분위기 5. 벤처투자 활성화
	사회적 책임	1.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 종류 2. 향후, 사회적 책임 실천 계획의 유무

0	^흥 영상 애로 사항	1. 신기술 개발 애로 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애로 3. 국내 판로개척 애로 4. 해외시장 개척 애로 5. 필요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애로 6.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애로 7. 기술유출·디자인 및 상표 도용 애로 8. 업계 내의 과다경쟁 및 덤핑 애로 9. 법률, 회계, 세무 관련 지식 부족 애로 10. 조직관리 애로 11. 환율 변동 애로 12. 특허 분쟁 애로 13. 각종 규제 애로 14. 산·학·연 간 협력 활동 애로 15. 불공정한 시장질서 애로
사 기 기	·항 및 정책	 업종 관련 애로사항 경영 관련 애로사항 정책 건의사항

나. 참가자

인지면접은 총 15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2019년 벤처 기업정밀실태조사 조사대상 중 50개의 사업체 정보를 받아서 각 개별 사업체(벤처기업) 담당자와의 유선통화를 통해 인지면접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도모하였고 중소벤처기업 부의 공문20)과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조사표를 E-mail 전송 후 참가의사를 확정하였다.

참가자의 연령대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응답 요령'에서와 동일하게 한정하여 과장급 이상의 직급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20대의 연령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30대는 5명, 40대는 7명, 50대는 3명으로 구성되었다. 성별은 남성 9명, 여성 6명이었고 교육정도는 고등

²⁰⁾ 인지면접을 실시하기 이전에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공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조사표에 대한 인지면접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중소벤처기 업부 공문이다.

학교 졸업이 2명, 대학 졸업이 11명으로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이 2명으로 구성되었다. 아래 의 <표 5>와 <표 6>은 인지면접 참가자의 구성내용과 각 참가자별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인지면접 참가자 구성

(단위: 명)

	성	별		연령			교육	정도	
전체	,	,				-	대	졸	대학원졸
	남	여	30대	40대	50대	고졸	4년제 미만	4년제 이상	(석사 이상)
15	9	6	5	7	3	2	1	10	2

〈표 6〉 인지면접 참가자 특성

번호	성별	연령(만)	교육정도 ¹⁾	법인/개인 ²⁾	업종 ³⁾	직위	근무 연수
14)	여	34	대학교(4년제 이상)	법인	제약	차장	10년
2	여	48	대학교(4년제 이상)	법인	정밀	차장	9년
3	남	55	대학교(4년제 이상)	법인	금속	대표이사	8년
4	남	42	대학교(4년제 이상)	법인	의료	부장	6년
5	남	59	대학원	법인	반도체	대표이사	1년(동종업계20년)
6	여	36	대학교(4년제 이상)	법인	기계	차장	10년
7	남	53	대학교(4년제 이상)	법인	기계	임원	18년
8	남	46	고등학교	법인	전자부품	부장	8년
9	여	46	고등학교	개인	금속	과장	9년
10	여	39	대학교(4년제 이상)	법인	정밀	팀장	8년
11	여	40	대학교(4년제 이상)	법인	기타제조	과장	6년
12	남	46	대학원	법인	통신기기	부장	9년
13	남	39	대학교(4년제 이상)	법인	화학	차장	1년
14	남	47	대학교(4년제 이상)	개인	반도체	대표이사	7년
15	남	36	대학교(4년제 미만)	법인	금속	과장	1년(동종업계7년)

주: 1) 교육정도는 최고학력의 졸업을 기준으로 한다.

- 2)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서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의 구분에 따른 분류이다.
- 3) '제10차 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서의 벤처기업 업종 분류(2019년 기준)'이다.
- 4) 각 번호는 이후 인지면접 연구결과에서 언급될 사례 번호와 일치한다.

다. 연구 절차

인지면접은 2019년 9월 2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섭외된 사업 체(벤처기업)의 담당 직원과의 유선협의로 참가일을 정하고 E-mail을 통하여 공문과 조 사표를 전달한 후 해당일에 해당사업체(벤처기업)를 방문하여 진행되었다.

사전에 유선으로, 방문 시 진행될 인지면접 진행절차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하였 고 해당 인지면접의 특성상 독립된 공간이나 장소 섭외를 부탁하였다.21)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된 인지면접에서는 참가자에게 다시 한번 간략히 인지면접의 실시배경과 인지면접의 진행과정을 안내하고 참가동의서22)를 작성하고 이어서 자기기 입식으로 조사표를 작성하였다.23) 조사표 작성 완료 후 참가자와 면접원 간 일대일 면 담이 실시되었고, 이 과정에서 관찰자의 기록내용과 사전에 마련한 프로빙(probing, 캐어 묻기) 지침을 토대로 심층질문을 추가하는 등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조사표 각 항목의 응답과정에 대해 상세히 묻고 응답내용을 기록하였다. 일대일 면담을 마치고 사례비 지 급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때 참가자와 나는 면담내용의 전 과정은 참가자의 동 의하에 모두 녹음되어 이후 녹취록을 작성하여 분석에 활용되었다.



[그림 11] (협의) 인지면접 진행과정

라. 프로빙 지침

프로빙 지침(면담 지침)은 조사표의 각 항목별로 참가자 간 공통된 캐어묻기 질문을 통한 응답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한 질문 목록으로 전문가 FGI의 탐색적 접근을 통하여 구체적인 프로빙 지침의 방향을 설정하여 작성되었다. 이

^{21) 15}개의 해당 사업체(벤처기업)에서는 모두 '회의실'이나 '방문객 쉼터' 등을 섭외하였기 때문에 '독립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²²⁾ 참가동의서에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인지면접 연구의 참가 동의 의사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이용 동 의,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인지면접 과정의 녹음 등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²³⁾ 이때, 사전에 E-mail로 제공한 조사표를 작성하고 인지면접에 참여한 경우는 별도의 조사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일대일 인지면접을 진행하였다. 조사표에 대해서는 법인기업(13/15명)은 법인기업용 조사 표로, 개인사업자(2/15명)는 개인사업자용 조사표로 각각 별도로 진행하였다.

렇게 작성되어 인지면접에서 사용한 조사항목별 프로빙 지침은 <표 6>에 제시하였다. 주로 응답에 도달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여 질문의 의도와 용어의 의미 를 이해했는지 탐색함으로써 오류 발생 가능성과 응답 어려움 정도를 파악하는 질문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가상 상황을 가정하여 응답하도록 요구하는 비 네트(vignette, 상황대입) 기법24)을 적용하거나 탐색적 심층 질문을 추가하여 다양한 사 례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7〉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별 프로빙 지침

부문	조사문항	캐어묻기 질문내용			
도입	-	응답이 어려웠던 항목 및 이유 전체 조사표의 응답 어려움의 정도			
개인사항	소속부서 및 작성자 지위	'소속부서'의 응답범주의 적절성 (총근무인원 대비 소속부서의 세분화 정도) '작성자 지위'의 적절성			
	응답기업 정보	'업체기재 사항 아님' 문구의 인쇄 여부 및 확인 여부			
기업 일반 현황	기업 일반 현황	응답 선택 이유 기업성장 각 단계의 이해도 확인 비제조기업의 의미 이해 확인 스마트공장의 의미 이해 확인			
대표자 및	대표이사 특성	'만 나이'의 정확한 작성 확인 (객관식과 주관식의 응답부담 비교) '이전 근무지'의 복수 응답 가능성 확인 '이전 직장 업무'의 "직전"인지 "이전 모두"인지 확인			
창업자 특성	창업자 특성	'만 나이'의 정확한 작성 확인 (객관식과 주관식의 응답부담 비교) 구체적 창업방식 확인 '이전 근무지'의 복수 응답 가능성 확인 '이전 직장 업무'의 "직전"인지 "이전 모두"인지 확인			
	인력현황	구체적 작성방법 확인(자료 확인 후 작성 여부 확인)			
인력 및 조직 현황	인력구성	'관리' 구성인원의 구체적 의미 이해 확인 (경영관리로 이해했는지 단순 관리업무로 이해했는지)			
	예상 신규 채용	응답 선택 이유			

²⁴⁾ 비네트(vignette)기법은 참가자에게 실제 상황이 아닌 가상 상황을 제시한 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 떻게 응답할 것인지" 묻는 기법이다(박선희·박현주·박주언, 2018). 인지면접은 그 특성상 소수의 참가자 를 모집하여 진행하는 과정이므로, 비네트 기법은 실제 조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질 문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부문	조사문항	캐어묻기 질문내용
	인력	보기항목이 배타적으로 이해되는지 확인 (각 보기항목 간 의미 차이를 구별하는지 확인)
	구인하기 어려운 직무 및 직급	응답 선택 이유 구인하기 어려운 구체적 업무가 무엇인지 확인 '직무'를 '업무'로 이해하는지 확인 '직급'의 응답범주를 적절하다고 느끼는지 확인
-N D D	지분구조	구체적 작성방법 확인(자료 확인 후 작성 여부 확인) '엔젤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구별 확인 '엑셀러레이터'의 용어 이해 확인
재무 및 자금 현황	매출구조	'(창업년도 연동/고려 필요)'문구의 이해 확인 '벤더'의 의미 이해 확인
	자금조달	정부 정책지원자금 혜택 경험이 있다고 (구체적 금액을) 작성한 경우에 각주를 읽고 작성했는지 확인
	주력 기술	응답 선택 이유 각 '기술'에 대한 설명의 이해도 확인 설명된 각 '기술' 이외에 추가 사항은 없는지 확인
기술 및 산업재산	해외특허나 국제규격	'해외유명규격'과 '국제규격'의 구별 여부 확인
권 현황	제품 및 서비스 구조	대표 제품이 무엇인지 확인 전체 제품의 수의 산출 근거 확인
	기술력 비교	응답 선택 이유 답변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확인(기준 확인)
	경쟁사와 비교	응답 선택 이유 보기항목의 '보통'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 '경쟁사'는 선택이유와 구체적인 대상 확인 ('경쟁사'는 국내 기준인지 해외 기준인지)
혁신 및 역량현황	경쟁전략초점	응답 선택 이유 보기항목의 '보통'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 '고부가가치화' 문구의 이해도 확인 ('차별화'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했는지 확인)
	비즈니스 모델	응답 선택 이유 보기항목의 '보통'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 '비즈니스 모델' 문구의 이해도 확인
마케팅, 해외 진출	영업 및 마케팅	응답 선택 이유 보기항목의 복수 응답 가능성 확인

부문	조사문항	캐어묻기 질문내용			
	주력제품	'주력제품'의 구체적 대상 확인			
현황	해외수출 애로사항	응답 선택 이유 보기항목 간 의미 차이의 구별 확인 '현지시장 규격'의 이해도 확인 ('해외규격', '국제규격'과의 구별 확인)			
제휴 및 협력 현황	협력기관	보기항목의 이해도 확인 협력기관이 2개 이외에 추가로 있는지 확인 질문표의 전체적 구조 이해 확인			
벤처캐피	크라우드 펀딩	응답 선택 이유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 이해 확인			
탈 및 M&A	벤처캐피탈	응답 선택 이유 '벤처캐피탈'의 개념 이해 확인			
	인수합병 환경	보기항목 이외의 추가 항목 여부 확인			
	납품단가	'납품단가'의 구체적 작성 기준 확인 (주력제품 기준인지 전체 제품의 평균인지)			
	이익률	'희망 적정 이익률'의 구체적 계산 기준 확인 (현실성 고려 여부 및 질문 목적 이해 확인)			
공정거래 질서 현황	불공정 거래	무응답 여부 확인 '불공정 거래'의 보기항목 이외의 추가사항 여부 확인			
	기업거래시 애로사항	응답 선택 이유 '기술 관련 애로'와 '금전 관련 애로'를 각각 고려했는지 혹 은 통합하여 고려했는지 확인 보기항목의 이해도 확인 보기항목 이외의 추가 사항 여부 확인			
벤처기업	벤처확인제도	응답 선택 이유 보기항목 중 어려운 문구나 용어 확인 답변내용에 대한 구체적 근거 확인			
지원제도 현황 및 교육,	벤처인프라	응답 선택 이유 보기항목 중 어려운 문구나 용어 확인 답변내용에 대한 구체적 근거 확인			
인프라, 경영애로 사항	사회적 책임	응답 선택 이유 보기항목 간 구체적 구별 이해 확인 (보기항목 중 유사하게 느끼는 항목 여부 확인)			
	경영상 애로사항	응답 선택 이유 보기항목 중 어려운 문구나 용어 확인			

2. 연구 결과

가. 기업 일반현황

1) A1 응답기업 정보

A1-1. 회사명					
A1-2. 사업자등록번호	()()()-(1()-()()()()()()			
A1-3. 법인등록번호	()()()()()	()() - ()()()()()	()()		
A1-4. 벤처확인 유형 (4개 중 1개 선택)	① 기술평가대출기업(중소벤처기업진홍공단) ②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보증기금) ③ 벤처투자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자본금 10% 이상 투자) ④ 연구개발기업				
A1-5. 회사주소	시(도) 구(군)				
A1-6. 귀사의 주 산업은 어떤	02003202534 (AUTSLIE) (A1-6-1, 1단계 업종분류	대분류:		
업종에 속하십니까?	KSIC코드	A1-6-2, 2단계 업종분류	중분류 :		
(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	A1-6-3, 3단계 업종분류	소분류 :		

[그림 12] 응답기업 정보

'응답기업 정보' 문항은 응답기업의 사업체 기본 정보에 대한 질문으로 '업체 기재 사항 아님' 문구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체(벤처기업)25)가 직접 작성하지 않는 문항이다 ([그림 12]). 그러나, 인지면접을 위해 방문한 사업체에서는 해당 문구가 미인쇄된 상태 인 조사표를 팩스로 전송받아 'A1 응답기업 정보'를 직접 작성한 사례(12/15명)가 발견 되었다. 불필요한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가중한 경우로 더욱이 '벤처확인 유 형'이나 'KSIC 코드' 등은 작성 시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응답오류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향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다. 우선 '벤처확인 유형'의 경우는 사례6의 경우에서처럼 "명시적으로 '벤처확인 유형' 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기술평가보증기업',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에 모두 해당 되는 경우인데 모두 작성해야 하는지 하나만 작성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KSIC코드'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직접 찾아 작성한 경우269와 공장등록증을 찾 아 작성한 경우,27) 통계청의 다른 조사를 참고한 경우,28) 담당 직원에게 확인하여 작성

²⁵⁾ 이후 '사업체(벤처기업)'는 편의상 '사업체'로 줄여서 표기하였다.

²⁶⁾ 사례 5, 사례 8, 사례 9, 사례 10, 사례 12, 사례 14, 사례 15

²⁷⁾ 사례 11

한 경우29)로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통하여 작성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조사가 필요 없는 문항들이면 조사표 자체에서 해당 'A1 응답기업 정보'의 모든 문항의 삭제가 필요 해 보이고, 만약 조사하여야 하는 문항들이면 '업체 기재 사항 아님' 문구를 모든 조사 표에서 삭제하여 공통된 조사표를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 6)

- 면접원-(벤처확인 유형을)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벤처확인 유형에서 3개 를 선택하셨어요?
- 참가자- 아, 이거 모두 작성해야 하는지 하나만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서 전화를 걸었는데 저희는 다 해당돼서 체크를 했는데 한 개만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희가 현재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번을 선택했거 든요.

또한, 상단의 '업체 기재 사항 아님' 문구와 하단의 각주의 별표 내용(* A1-6은 웹에 서 직접 입력할 경우 응답자 선택에 따라 A1-6-1~A1-6-3은 자동적으로 분류됨)이 서로 상충되어 응답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각주 내용대로 웹에서 자동 분류 되는 사항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처리할 문제이고 굳이 종이 조사표에 인쇄할 필요는 없 는 문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표의 가독성 제고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필요 한 각주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 제 언 > -----

- '업체 기재 사항 아님' 문구를 삭제하거나 A1 전체 문항 삭제
- 각주 별표 내용의 삭제

2) A2 기업 일반현황

A2-1. 창업년도(법인설립년도)	년[4자리]	
--------------------	--------	--

[그림 13] 창업년도 및 법인설립년도

²⁸⁾ 사례 7

²⁹⁾ 사례 13

A2-1은 창업연도와 법인설립연도가 같은 의미로 질문이 구성되어 있다([그림 13]). 그런데, 응답자들은 법인설립연도를 법인등록일로 인지하였고 창업연도와 법인설립연도 가 달라서 응답하는데 고민한 사례(사례7, 사례 11, 사례 12)가 있었다. 이 경우 '법인설 립연도'를 '법인등록일'로 생각하여 혼란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응답 기준이 모호하여 응답자의 응답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창업연도와 법인설립연도를 병행해서 묻기 보다는 '법인설립연도'를 삭제하고 직관적인 '창업연도'로 묻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또한, '년도'는 '연도'의 잘못된 표기이므로 '연도'로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 < 제 언 > ---

- '법인설립연도'를 삭제 후, '창업연도'로 질문 구성
- '창업년도'는 '창업연도'로 표기

A2-2는 벤처기업의 해당 성장단계를 선택하는 문항이다([그림 16]). 각 단계별로 용 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에 대하여 응답자 간 이해가 상이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특 히 '고도성장기'와 '성숙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응답자들의 혼란이 발견되었다.

THE NEW YORK OF THE	① 창업기	② 초기성장기	③ 고도성장기	④ 성숙기	⑤ 쇠퇴기
A2-2. 기업성장단계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준비하는 단계		제품 및 시장이 확대되고 매출이 급증하는 단계	경쟁이 심화되고 성장이 안정되는 단계	기업 활동이 정체되거나 철수가 고려되는 단계

[그림 14] 기업성장단계

'성숙기'의 용어설명 중 '경쟁이 심화'에 초점을 맞춰 이해한 경우(사례 3)는 "(매출 발생)시장이 확대(중동지역)되고 매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성 숙기'로 응답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 최근 회사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시장 이 중동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고도성장기'가 더 적합할 수 있는 경우라 볼 수 있겠다. 이는 전문가 FGI에서도 '성숙기'의 설명을 '경쟁이 심화되고' 를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으나'로 변경하면 좀 더 응답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 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는 달리, 사례1의 경우에는 '성장기'의 용어설명 중 '성장이 안정'에 초점을 맞춰 "안정을 일정 비율로 성장이 증대되는 경우로 이해하여 '고도성장기'로 응답하였다."고 하였으나 해당 사업체는 2000년 창업 이후 매출이 급증하는 단계가 지나 현재 일정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단계로 '성숙기'에 해당함에도 '고도성장기'로 응답한 사례 도 있었다.

따라서 적어도 '성숙기'에 대한 용어 설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제 언 > ----

• '성숙기'의 설명의 재검토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나 성장이 안정되는 단계" 정도로 수정 검토)

A2-3은 '제조 기업'인지 '제조하지 않는 기업'인지를 묻는 질문([그림 17])으로 제조 하지 않는 기업을 '비제조기업'으로 단순하게 묻고 있다.

A2-3. 제조 및 비제조	① 자체 제조	② 제조+ 외주(아웃소싱	%
	③ 전부 외주(아웃소싱)	④ 비제조기업	

[그림 15] 제조 및 비제조

그런데, 벤처기업의 업종 유형에는 '서비스 제공 기업'과 '도소매 기업'도 포함되는 데, '서비스 제공 기업'의 경우에 보기항목 ④의 '비제조기업'을 '서비스 제공'도 포함되 는 것으로 이해하여 응답할 수도 있으나, 사례1에서와 같이 보기항목 ④를 "제조를 하지 않는 도소매 기업"으로 한정하여 이해하면 '서비스 제공 기업'은 보기항목 ①의 '자체 제조'에 응답하게 되어 같은 '서비스 제공 기업'에 해당해도 응답자에 따라서 다른 보기 항목에 응답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응답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기 항목 ④를 '비제조기업(서비스업 및 도소매업 포함)'으로 제시하거나 '자체 제조(서비스 업 포함)'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례 1)

면접원- 비제조 기업이 4번에 있는데, 비제조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응답할 것 같 으세요?

참가자- 음...도소매...그런 업종...제조를 안 한다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면접원- 아, 생산을 하지 않는 그런 기업?

참가자- 네, 물류 뭐 이런 거?

-- < 제 언 > --

•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 포함'을 보기항목 ④의 괄호 형태로 제시하거나, 보기항목 ①에 '서비스업 포함'을 괄호 형태로 제시

A2-4는 스마트공장의 도입 의향을 묻는 질문([그림 18])으로 '스마트공장'에 대한 설 명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을 통해 응답함으로써 응답오류가 발생하였다.

A2-4. 귀사는 스마트공장 도입의향이 (T) al ② 아니오 있습니까?

[그림 16] 스마트공장 도입 의향

즉, "(단순) 자동화"로 이해한 경우,30) "전문화"로 이해로 이해한 경우,31) "대량화"로 이해한 경우32) 등이 있었으며 각각의 사업체의 상황에 맞게 응답하였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스마트 공장을 (명시적으로) 몰라서 '아니오'로 답한 경우33)가 15명 중 4명이었다 는 것이다. 이 경우는 '스마트공장'에 대한 용어 설명이 있었다면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혹은 전문가 FGI에서 지적한 대로 해당 질문의 위치가 소목차 'E. 기술 및 산업재산권 현황'에 위치해 있었다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34) 따라서 질문 문항의 위치를 소목차 E로 옮기거나 스마트공장에 대한 용어 설 명을 추가해야 응답자의 응답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질문이 필요하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향후 도입 의향이 있는지 물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 제 언 > ----

- '스마트 공장'의 용어 설명을 추가하거나 질문 문항의 위치를 소목차 E로 변경
- '스마트 공장'의 도입 여부를 묻는 선행질문 필요

나, 대표자 및 창업자 특성

1) B1 대표이사 특성

B1-1. 현 대표이사는 귀사의 창업자입니까?	① alæB2−1	② 아니 <u>오</u> ☞B1-2	
------------------------------	-----------	---------------------	--

[그림 17] 대표이사가 창업자인지 여부

B1-1은 대표이사가 창업자인지를 묻는 질문이다([그림 17]). '예', '아니오'로 묻는 단 순한 이분형 질문형태이다. 보기항목 ①과 ②에 모두 이동지시문이 있어 응답자의 편의 를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동지시문에 따른 응답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즉, 보기항목 ①에 응답한 경우는 이동지시문에 따라 B2-1로 이동하여 B1의 모든 질문은 응 답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인데 보기항목 ①의 이동지시문을 인지하지 못하고 B1의 모든 질문에 응답한 사례가 4명35) 발견되었다. 이는 보통의 질문지 구성에서 이동지시문은 후반부의 보기항목에 있고, 앞쪽에 보기항목에 응답한 경우는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는 형태에 익숙해진 결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동지시문의 인지오류에서 오는 응답 오류 사례는 <표 8>과 같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이동지시문의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독성도 제고하고 응답부담과 응답오류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표 8〉 후술(각주 처리)된 이동지시문 설명에 대한 인지 오류 사례

문항 번호	후술된 이동지시문 인지오류 사례	비고
B1-1	사례5, 사례6, 사례7, 사례10	대표이사/창업자 모두 작성
B2-6-3-2	사례6, 사례8	공동창업자 역할 누락
B2-9	-	이동지시문(☞B2-9-1) 불필요

³⁰⁾ 사례 5, 사례 7, 사례 8, 사례 15

³¹⁾ 사례 2

³²⁾ 사례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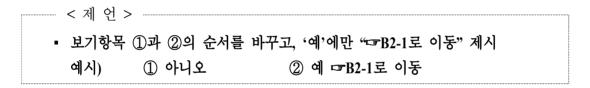
³³⁾ 사례 1, 사례 4, 사례 6, 사례 10

³⁴⁾ 소목차 'E. 기술 및 산업재산권 현황'에는 '스마트공장'에 대한 용어설명이 되어 있다. 다만, 소목차 E는 전체 162문항의 중간 정도 위치(78번째 문항)로, 소목차 E에서 용어설명을 읽고 다시 A2-4로 돌아가서 응답 내용을 변경할 사례가 얼마나 많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질문 문항의 위치변경을 고려하지 않는다 면 용어설명을 해당 문항(A2-4)에 추가할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³⁵⁾ 사례 5, 사례 6, 사례 7, 사례 10

문항 번호	후술된 이동지시문 인지오류 사례	비고
C4	-	(☞C4-1)의 응답 혼란 야기
D8-2	사례8, 사례12	스톡옵션 미활용 이유 응답 누락
G1-1	사례2	보유 개수 누락
G3-2 / G4	-	각주 절명 부분 불필요
G4-1/ G5-1 / G5-2	사례2, 사례6, 사례7, 사례10	각주☞ 설명 및 이동지시문에 의한 응답 혼선 발생
I3	-	불필요한 이동지시문(☞C3-1) 삭제
I3-1	사례4, 사례13	벤처캐피털 도움문항 응답 누락

더불어. B1-1의 질문은 대표이사가 2명인 경우에 대한 고려가 없다. 사례 11의 경우. "대표이사가 2명이라 B1-3 ~ B1-6까지 모두 복수 응답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창업자' 의 경우처럼 대표이사가 복수인 경우도 고려하여 질문지를 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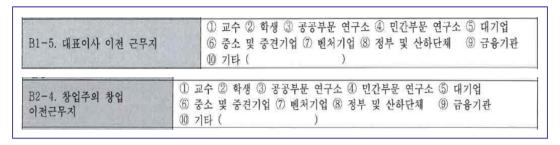
〈표 9〉 '만 나이' 질문 유형

주관식	B1-3. 대표이사 연령(현재) 반세
객관식	B2-2. 귀사 <u>창업 당시</u> 창업주의 연령(만나이로 계산) ① 20대(29세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B1-3과 B2-2는 각각 대표이사와 창업자의 '만 나이'를 묻고 있는데, 그 형태가 이질 적이다(<표 9>). B1-3에서는 주관식으로 묻고 있는 반면 B2-2는 객관식으로 묻고 있다. 분석을 위한 개인사항은 연령대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B1-3의 경우는 '만 나이'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30이므로 주관식 질문 형태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동일한 질문내용을 각각 다른 형태로 묻는 것은 응답부담을

^{36) &#}x27;대표이사 특성'을 작성한 경우는 7건의 사례(사례5, 사례 6, 사례 7, 사례 9, 사례 10, 사례 11, 사례 15)가 있었으며, 이 중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한 경우는 3명(사례 3, 사례 6, 사례 15)에 불과하였다.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일관성 있게 질문 유형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18] 대표이사 및 창업주의 이전 근무지

B1-5와 B2-4는 각각 대표이사와 창업자의 이전 근무지에 대한 질문이다([그림 18]). 응답자의 응답부담 경감과 이해 오류 방지를 위해 보기항목 ⑥과 ⑦의 구분형태와 이후 질문들의 보기항목 간의 기업범위의 일치가 필요해 보인다. 즉, 여기서는 '중소 및 중견 기업'과 별도로 '벤처기업'을 다른 항목으로 구별하고 있고 이후 질문 문항 D4는 '중소 기업 및 벤처기업'으로, H1과 H2에서는 '중소벤처기업'으로, J1·J2·J3에서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37) 이후의 모든 질문 문항(D4, H1, H2, J1, J2, J3) 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함께 묶어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B1-5와 B2-4 에서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선행질문인 B1-5와 B2-4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후행 질문에서 응답자에게 응답 혼 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B1-5와 B2-4 보기항목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후 질문들(D4, H1, H2, J1, J2, J3)에서는 '중견기업'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는 것들을 고려할 때 B1-5와 B2-4의 '중견기업'을 삭제한 후 보기항목 ⑥과 ⑦을 병합하여 '중소 및 벤처 기업'으로 하거나 이 질문 문항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면 '⑥은 중 견기업'으로 '⑦ 중소 및 베처기업'으로 각각 분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표 10〉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각기 다른 분류

문항 번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각기 다른 분류 (보기항목상 다른 분류)	비고
B1-5, B2-4	⑥ 중소 및 중견기업 / ⑦ 벤처기업	분리
D4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통합
H1, H2	중소벤처기업	통합
J1, J2, J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통합

³⁷⁾ D4, H1, H2, J1, J2, J3는 표현방식은 다르지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동일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B1-5의 대표이사의 '이전 근무지'와 B2-4의 창업자의 '이전 근무지'에서 '이전'의 의미가 모호하다. B1-6이나 B2-5의 '이전 업무경력분야'는 복수응답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복수응답 가능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이전'이 '직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이전 모든'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응답 혼란 가능성이 있다. 명시적으로 '직전 근무지'로 이해하여 응답한 경우,38) 묵시적으로 '직전 근무지'로 이해하여 응답한 경우,39) 명시적으로 '이전 모든 근무지'로 이해하여 복수 응답한 경우40)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응답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한 용어 대신 분명하고 명확한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로, B1-6과 B2-5의 '업무경력분야'는 '모두 체크'를 명시하였다.

(사례 3)41)

면접원- 그럼 회사는...

참가자- 회사는, 최초로 입사한 거는 한전(대기업)으로 했는데 그러고서 하나로텔레콤, 지금은 SK브로드 밴드로 바뀐 회사고, 바뀌기 전에. 그러고서 이제 중소기업은 이제 주식회사 광스틸이라는 데를 갔어요.

면접원- 아, 그렇게 근무를 하신 거예요?

참가자- 한 군데 더 갔어요, 예산 철광이라는 데를 갔어요.

---- < 제 언 > ----

- 복수 응답이 가능한 질문형태의 경우 '복수 응답 가능' 문구 삽입
- 만 나이 응답 방법 통일 (객관식으로 연령대로 질문을 제언)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별할 것인지 유사개념으로 묶을 것인지 통일
- '이전'의 용어에 대한 재검토 ('직전'인지 '이전 모든'의 의미인지 명확화)

2) 창업자 특성

B2의 질문 문항에서는 '창업자 특성'으로 되어 있고 이후 표 내 질문 문항에서는 '창업자'와 '창업주'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일관성 측면에서 '창업자'로 통일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여기서 응답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고 응답 오류 가능성도 낮지만, 응답자의 응답부담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조사표 내에서 더욱이 같은 질문 문항의 표 안에서는 동일한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³⁸⁾ 사례 10, 사례 11

³⁹⁾ 사례 1, 사례 2, 사례 4, 사례 5, 사례6, 사례 7, 사례 8, 사례 9, 사례 12, 사례 13, 사례 14, 사례 15 40) 사례 3

⁴¹⁾ 사례 3은 창업자이자 대표이사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한 경우로 '이전 모든 근무지'를 고려하였다.

B2-1. 창업자 성별		① 남 ② 여
B2-2. 귀사 <u>창업 당시</u> 연령(만나이로 계산)	창업주의	① 20대(29세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B2-3. 창업주의 <u>창업</u> 최종학력	당시	①박사 ②석사 ③대졸 ④전문학사 ⑤고졸 이하☞B2-4
B2-3-1. 창업주의 <u>참</u> 약 전공	십 당시	①공학(엔지니어) ②자연과학 ③경영·경제학 ④인문사회학 ⑤기타()
B2-4. 창업주의 창업 이전근무지		① 교수 ② 학생 ③ 공공부문 연구소 ④ 민간부문 연구소 ⑤ 대기업 ⑥ 중소 및 중견기업 ⑦ 벤처기업 ⑧ 정부 및 산하단체 ⑨ 금융기관 ⑩ 기타 ()
B2-5. 창업주의 창업 (업무경력분야(모두 체크	VALUE OF THE PARTY	① 인사/총무 ② 재무/회계 ③ 전략/기획 ④ 홍보/마케팅/영업 ⑤ 연구/개발 ⑥ 생산/품질 ⑦ 유통/불류 ⑧ 기타 ()
	B2-6-1	① 대기업 등 타 기업의 분사 또는 계열사 형식으로 창업 ② 국가연구소, 대학교 등에서 창업보육(BI) 과정을 거쳐 창업 ③ 위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창업자가 독자적으로 창업
B2-6. 창업방식 E	B2-6-2	① 창업자 단독창업 ② 공동/팀 창업(2-4명과 역할분담 창업) 창업자 포함 멤버 수 : ()명
	B2-6-3	창업자의 주요 역할은? ①기술개발 ②영업·마케팅 ③관리 ④재무 ⑤기타 () 공동창업자의 주요 역할은? ☞B2-6-2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만
		①기술개발 ②영업·마케팅 ③관리 ④재무 ⑤기타 ()
B2-7. 창업 당시 귀사의 목표시장은?	4	① 국내 ② 해외 ③ 국내 + 해외
B2-8. 창업당시 창업자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경험 년수		년 (경험 없다면 "0"으로 표기) ※6개월=0.5년
B2-9. 귀사의 창업주는 창업 경험이 있었습니까		① 있음 ☞B2-9-1 ② 없음 ☞C1
B2-9-1. 창업주가 과 경험이 있는 경우, 그 경어대했습니까?	M 100000000	성공경험()번, 실패경험()번 합게:()번

[그림 19] 창업자 특성

B2-6-3 창업자의 주요 역할에 대하여 복수 응답한 사례(사례 4, 사례 9, 사례 14)가 발 견되었다. 이중 법인기업인 사례 4와 개인사업자인 사례 14는 "창업자가 복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수 응답했다"고 했으나, 개인사업자인 사례 9는 공동 창업한 경우인데, 공동 창업을 묻는 질문이 없어서 창업자의 역할에 복수 응답했다고 했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문항이면 '복수 응답 가능'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도 공동창 업 사례가 있을 것이므로 조사표에서 '공동창업자' 관련 질문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사례 9)

면접원- 창업주가...

참가자- 저희가 두 분이거든요?

면접원- 공동 창업하신 건가요?

참가자- 네.

... 중략 ...

면접원- 아, 그럼 두 분이 그래도 주력하시는 분야가 다르실 것 같은데? 참가자- 한 분은 관리나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하시고요. 한 분은 현장 관리.

B2-9-1은 창업주의 과거 창업경험 횟수 및 그 합계를 별도로 묻고 있다. 여기서, 불필 요한 합계 질문은 삭제가 필요해 보인다. 응답부담만 가중시키고 실익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사례 5의 경우는 과거 창업 경험이 있는 유일한 사례인데, 합계 문항의 응답 을 누락하였다. 더욱이 응답자의 혼란 방지 및 응답부담 경감을 위해서 일관성 있는 질 문유형의 유지가 필요한데, C1 이후 모든 질문 문항에서는 '자동합계'를 명시하여 합계 를 구해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써 응답부담을 경감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 제 언 > -----

- '창업자'로 문구 통일
- '창업자의 주요 역할'의 복수 응답 가능성 고려
- '창업자의 과거 창업경험 횟수만 조사 (합계문항 삭제)

다. 인력 및 조직 현황

1) C1~C2 인력현황 및 인력구성

C1.	귀사의	인력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업년도	연동/고려	필요)
			1	NO. 10 TO SECURE OF	A STREET STREET	THE PARTY OF THE P	TO BUILD IN

	201	7년 12월말 기년	준(CEO/임원 포함)	20	18년 12월말 기	준(CEO/임원 포함)
C1-1. 총 정규직 수	남성()명, 여성()명, 합계(지통제산)	남성()명, 여성()명, 합계(자동계산)
C1-2. 총 비정규직수	남성()명, 여성()명, 합계(작동계산)	남성()명, 여성()명, 합계(자동계산)
C1-3. 총 종사자수	남성()명, 여성()명, 합계(세종계절)	남성()명, 여성()명, 합계(작동계산)

- ☀ [총 종사자수 = 정규직 +비정규직] 자동계산
- * 정규직은 비정규직(계약직, 위촉직, 파견직, 인턴 등)을 제외한 모든 인력

C2. 귀사의 총 종사자(정규직 + 비정규직)의 인력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업년도 연동/고려 필요)

구 분	관리	생산	영업	R&D	기타	합계
2018년 말 직종별 인력구성	명	명	명	명	명	(자동계산)

- * C2의 합계는 C1-3의 2018년 12월말 총 종사자수와 일치하여야 함
- ☀ R&D인력은 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유무와 관계없이 R&D 전담하는 모든 인력을 의미함

[그림 20] 인력현황 및 인력구성

'(창업연도 연동/고려 필요)' 문구가 제시되어 있으나. 해당 문구의 고려 없이 '2018년 12월말 기준' 문구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어 그에 따라 질문에 응답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며, 실제로 15명의 사례 모두 '(창업연도 연동/고려 필요)'의 고려 없이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였다라고 하였다. 이후에 D2~D6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C2는 '총 종사자'의 인력구성을 묻는 질문인데. C1에 제시된 'CEO/임원 포함' 문구가 없어서 '총 종사자'에 '대표이사'를 누락하고 인력구성을 답변한 사례가 발견되 었다(사례 9, 사례 10). 따라서 C1과 같이 C2에도 'CEO/임원 포함' 문구를 삽입하여 응 답오류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례 9)

면접원- 지금 관리에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 명은 누구, 누구를 생각하고 해주신 거예 요? 대표자님도?

참가자- 아니요. 대표자 빼고.

... 중략 ...

면접원- 네, 그러면 대표자님은 어디에 들어가신 건가요?

참가자- 여기에요? 여기 대표자님 뺐는데.

더불어, C2의 '관리'의 개념을 응답자별로 다르게 이해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즉 '경 영관리'로 이해42)하거나 '단순 관리업무 전체'로 이해한 경우43)로 나뉜다. 따라서 질문 의 의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경영 관리'로 명시하거나 '단순 관리업무 포함'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 제 언 > -----

- '(창업연도 연동/고려 필요)' 문구의 재검토
- C2에 '(CEO/임원 포함)' 문구의 추가
- '관리' 용어의 명확화

2) C3 인력의 학력별 구성비

C3은 고용인력의 학력별 구성을 비율로 묻고 있다([그림 21]). 이는 C1(인력현황에

⁴²⁾ 사례 2, 사례 4, 사례 14(cf. 사례 10의 경우도 '경영관리'로는 이해하였으나 '대표이사'를 누락하였다.)

⁴³⁾ 사례 1, 사례 3, 사례 5, 사례 6, 사례 7, 사례 8, 사례 9, 사례 11, 사례 12, 사례 13, 사례 15

구 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합계
고용인력의 학력별 구성						100%

[그림 21] 인력의 학력별 구성비

대한 '인원수' 질문)과 C2(총 종사자의 인력구성에 대한 '인원수' 질문)와 달리 '구성비 율'로 묻고 있어서 해당 질문의 의도와 달리 응답자들은 질문방식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C1과 C2의 연장선에서 C3를 '인원수'로 인지하는 오류를 발생시켰다. 15명 중 11명44)이 '구성비'로 응답하지 않고 '인원수'로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조사표 디자 인 가이드라인45)'에도 위배되는 사항으로 응답오류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해서 생긴 결 과로 보인다. 따라서 C3의 질문방식은 '인원수'로 묻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분석연구를 위하여 구성비가 필요하다고 해도, 구성비의 계산은 연구자의 몫이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력 순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 즉, B1과 B2에서의 '학력 순서'와 같은 형태로의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박사-석사-대졸-전문대졸-고졸 이하). 일반적인 조사표에서는 학력순서를 '고졸 이하-전문대졸-대졸-석사-박사'로 구성하고 있 으나,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학력순서는 B1, B2, C3에서만 나오는데 앞의 두 경우에 서 이동지시문에 따라 고려된 순서라면 조사표를 일관성 있게 구성하기 위해 C3의 학력 순서도 같은 순서로 제시하는 것이 응답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선택으로 보인다.

---- < 제 언 > -----

- '학력 구성비'의 질문형태를 '학력 구성 인원수'로 변경
- 보기항목의 학력 순서의 재검토

3) 신규채용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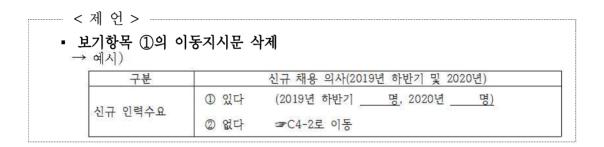
구 분	2019년 하반기 및 2020년 신규채용 의사	2019년 하반기	2020년	합계
TE	①있다 ☞C4-1 ②없다 ☞C4-2	2013년 아닌기	2020년 약 명	日刊

[그림 22] 예상 신규채용 인력

⁴⁴⁾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7, 사례 9, 사례 10, 사례 11, 사례 12, 사례 13, 사례 14

⁴⁵⁾ Morrison et al.(2009)의 '사업체조사 조사표 디자인 가이드라인(18개)'

C4는 예상 신규채용인력에 관한 질문([그림 22])으로 보기항목 ①과 ②의 모두에 이동 지시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보기항목 ①의 이동지시문은 문제가 있다. 만약 보기항 목 ①에 응답하고 이동지시문에 따라 C4-1로 이동하게 되면,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의 신규채용 인력을 작성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실제로 발생 한 오류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보기항목 ①의 이동지시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4) 구인하기 어려운 직급

```
C5. 귀사가 현재 가장 구인하기 어려운 직무 및 직급은 어디입니까?
C5-1. 직무 1순위( ) 2순위( )
① 인사/총무 ② 재무/회계 ③ 전략/기획 ④ 홍보/마케팅/영업 ⑤ 연구/개발 ⑥ 생산/품질 ⑦ 유통/물류
⑧ 기타 (
C5-2. 직급 1순위( ) 2순위( )
① 사원/대리급 ② 중간 관리자급 ③ 임원급
```

[그림 23] 구인하기 어려운 직무와 직급

C5-2에서는 구인하기 어려운 직급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그림 23]). 보기항목 ①의 '사원/대리급'은 각각 '신입사원'과 '대리(주임)급'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지 면접 중 '신입사원'은 신규 채용이고, '대리(주임)급'은 경력채용이므로 구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15명 중 12명46)이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전문가 FGI에서도 1·2순위 로 묻는 서열식 질문에서 보기항목이 3개로만 구성된 것은 문제가 있고 적어도 4개 이 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⁴⁶⁾ 사례 3, 사례 4, 사례 5, 사례 6, 사례 7, 사례 8, 사례 9, 사례 10, 사례 12, 사례 13, 사례 14, 사례 15

- < 제 언 >

■ 보기항목 ①을 '신입사원'으로, 보기항목 ②를 '대리(주임)급'으로 추가 (나머지 보기항목은 ③ 중간관리자급, ④ 임원급으로)

라. 재무 및 자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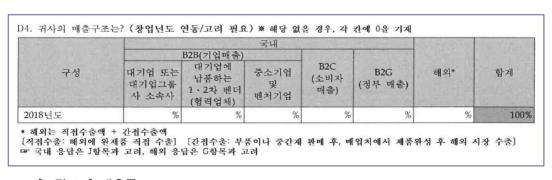
1) 지분구조

구분	① 창업자	② 임직원(대표이 사 포함)	③ 가족(대표이 사나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지포함)	④ 벤처캐피털 기관투자자	⑤ 엔젤 및 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자	합계
보유지분 비율	%	%	%	%	%	%	100%

[그림 24] 지분구조

D1은 지분구조에 대해 묻고 있다([그림 24]). 응답자들은 작성 시 자료를 확인하고 작성하였다. "창업자나 임직원의 이름은 인지하고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엔젤투자자'나 '액셀러레이터'에 대해 알지 못해서 '개인 투자자'와 구별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15/15명). 즉, "엔젤투자자나 액셀러레이터에 대해 모르고 구별도 안된다"고 15명 모두 같은 응답을 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려운 질문 문항에 대해서는 미응답이나 응답오류가 발생하므로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자'의 각 용어에 대한 용어 설명이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해 보인다.47)

2) 매출구조



[그림 25] 매출구조

⁴⁷⁾ 이와 더불어, 질문지 후반부(11)에 나오는 '크라우드 펀딩'도 용어설명이 필요하다(모른 사례 15/15명).

D4의 경우에는 2018년 기준으로 각 대상별 매출비율을 묻는 질문이다([그림 25]). 그 런데, 인지면접 과정에서 매출 대상의 포괄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국내 매출 대상 중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연구소48)', '민간부문 연구소49)', '(대)학교' 등이 누락되어 있 어서 응답자들이 응답부담을 느끼거나 혹은 응답 누락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사례 6 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매출이 있는데, 답변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답변을 누 락했다"고 하였고, 사례 7의 경우는 "국책연구소와 대학교에 매출이 발생하는데, 작성하 는 칸이 없어서 (유선 문의 후, 국책연구소는 정부매출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칸 을 만들어서 작성하라는 말을 듣고) 별도의 칸을 그려서 작성했다"고 하였다. 사례 10의 경우는 "국책연구소와 대학교에 매출이 있는데 국책연구소 매출은 'B2G(정부 매출)'에 작성하고, 대학교 매출은 무시하고 작성하였다"고 하였다. 사례 15의 경우는 "나라장터 를 통한 조달업무로 지방자치단체에 90%, 사급(민간)에 10% 매출이 발생하는데, 지방자 치단체는 작성하는 칸이 없고 민간(기업매출)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가 불명확하여 응답하지 않았다"(응답 누락)고 하였다. 따라서 위 언급한 사례라도 별도 칸을 추가하거 나 '기타()' 항목을 추가하고, '국책 연구소(공공부문 연구소)'나 '지방자치단체'는 'B2G(정부 매출)'로 작성을 유도50)하는 각주 설명의 추가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벤 더'의 용어설명이 추가 되어야 하겠다. 전문가 FGI에서는 "해당되는 기업(사업체)들은 해당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어도 응답하는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일부 견해도 있었지만, 실제로 명시적으로 "모른다"라고 응답한 사례가 3명51)이 있었고 '대리 점'이라고 응답한 사례52) 등이 있으므로 용어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 < 제 언 > ----

- 보기항목에 '연구소', '대학' 등을 추가하거나 '기타()' 항목을 추가
- 용어 설명이나 조작적 정의 필요

3) 스톡옵션

D8, D8-1, D8-2는 스톡옵션과 그 활용여부에 따른 주요 목적·이유에 대한 질문이다

⁴⁸⁾ 응답자들의 응답부담을 고려하여 최대한 조사표 내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해당 표현은 B1-5와 B2-4에서 보기항목에 사용된 표현이다. 참가자들은 '국책연구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⁴⁹⁾ 응답자들의 응답부담을 고려하여 최대한 조사표 내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해당 표현은 B1-5와 B2-4에서 보기항목에 사용된 표현이다. 참가자들은 '민간연구소'라고 하였다.

⁵⁰⁾ 이는 사례 10의 경우, 설문내용에 대한 유선문의한 결과로 '국책연구소의 경우는 정부 매출로 간주하여 작성하라'는 내용에 따라 작성된 내용이다. 따라서 '국책연구소(공공부문 연구소)'에 대한 별도의 칸을 만들지 혹은 정부매출로 간주할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⁵¹⁾ 사례 2, 사례 6, 사례 7

⁵²⁾ 사례 1

[그림 26] 스톡옵션

([그림 26]). D8의 보기항목 ④의 '미래'와 '향후'는 동의어 반복으로 '미래'를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D8-1의 보기항목은 "그 밖의" 다른 목적의 경우에는 응답할 수 없어 포괄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D8-2처럼 '기타()' 항목을 보기항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물론 D8-2의 보기항목 ⑤도 '기타()'로 수정하여 추가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여세부 내용을 확인하면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향후 통계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D8-1과 D8-2의 질문문항 후미에 각주형태(□로시)로 이동지시문의 같은 역할을 하는 조건 부연설명이 있다. 하지만, D8에서 '미활용'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아래의문항을 읽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즉, D8의 보기항목 '④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 미활용이며 향후에도 계획 없음'에 응답한 경우 D8-2의 추가 질문을 인지하지못한 사례가 2건(사례 8, 사례 12) 발견되었다. 이는 이동지시문을 직관적으로 D8에 스톡옵션에 대하여 '활용'과 '미활용'에 대응하여 '활용'인 경우(보기항목 ①과 ③인 경우)에는 "□ D8-1로 이동"의 이동지시문을 '미활용'인 경우(보기항목 ②와 ④인 경우)에는 "□ D8-2로 이동"의 이동지시문을 배치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마. 기술 및 산업재산권 현황

1) 해외특허나 국제규격 획득 여부

E3. 귀사가 획득하고 있는 해외특허나 국제규격 등은 무엇입니까?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해외특허 ② 해외유명규격(UL, CE, CCC 등) ③ 해외특허·국제규격 없음

[그림 27] 해외특허나 국제규격 유무

E3은 해외특허나 국제규격의 유무를 선택하는 문항이다([그림 27]). 여기서는 '해외특허'와 '해외유명규격'을 선택할 수 있고 '국제규격'은 선택할 수 없는 보기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어 포괄성에 문제가 있고 보기항목 ③에서는 '해외특허·국제규격 없음'으로 되 어 있어 상호배타적이지도 않게 되어 있다. 그에 따라서 응답자들은 각각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되고 질문의 의도와 다른 복수 응답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즉, '해외특허'나 '해외유명규격'을 별도로 복수 응답이 가능하나. 보기항목 ②의 '해외유명규격'만을 선 택하게 되면, 보기항목 ③의 '해외특허·국제규격 없음'도 자동적으로 체크해야만 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 경우, 보기항목에 '국제규격'을 추가하면 해결될 문제이나, 만약 질문 의 의도가 '해외유명규격'과 '국제규격'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국제규격'을 '해외유명규격'으로 변경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제규격'을 별도 보기 항목으로 추가할지와 '국제규격'을 '해외유명규격'으로 통일할지는 질문의 의도를 재확 인하여 조사기획자들이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다. 참고로 인지면접 과정에서 5명53)은 '해외유명규격'과 '국제규격'은 다른 개념으로 이해된다고 하였고 2명54)은 '국제규격'이 큰 개념으로 '해외유명규격'을 포괄한다고 하였다.

(사례 7)

면접원- 2번에 '해외유명규격'과 3번에 '국제규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되세 요? 각각 다른 것으로 이해되세요?

참가자- 국제규격은 ISO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어? 이것도 있네?

면접원- 그럼 다 있는 건데요?

참가자- 아, 저는 이걸 해외 특허랑 묶어놔서 같이 봤거든요.

면접원- 그렇군요, 그럼 국제규격도 갖고 계시고, 해외유명규격도 가지고 계시고.

참가자- 네. 획득하고 있는 것은 체크를 잘 했네요. 국제규격을 가지고 있고요, 해외유명규 격도 가지고 있네요.

면접원- 그럼 이게 각각 다른 건가요? 이게?

참가자- 네, 다릅니다.

더불어, "복수 응답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사용한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문구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즉, 조사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복수응답 가능의 의미 로 사용한 문구들을 일관성 있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각 질문 문항마다 다르 게 표현되어 있어 응답자로 하여금 각 문항별로 해당 문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응답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55) 아래의 <표 11>은 각 질문 문항별 '복수 응답 가능' 의 각기 다른 표현이다. 응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들 모두 통일이 필요해 보인다.

⁵³⁾ 사례 1, 사례 7, 사례 10, 사례 11, 사례 12, 사례 13

⁵⁴⁾ 사례 4, 사례 5

⁵⁵⁾ Morrison et al.(2009)의 '사업체조사 조사표 디자인 가이드라인(18개)'에서도 언급한 '레이아웃 일치'이다.

문항 번호	'복수 응답 가능'의 각기 다른 표현
B1-6	모두 체크
B2-5	모두 체크
E1-1	3개까지 응답 가능
E3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G5 (G5-1 / G5-2)	복수응답

복수응답 / 2개 선택 복수응답

〈표 11〉 각 질문 문항별 복수 응답 가능의 각기 다른 표현

바. 마케팅. 해외 진출 현황

1) 자체 브랜드

H1

K3-1

	해당 여부	보유 개수 *왼쪽 항목 '있다'일 경우
① 있다 () ☞G1-1 ② 없다 ()	G1-1. ()개 보유

[그림 28] 자체 브랜드 여부 및 개수

G1은 자체 브랜드의 소유 여부 및 그 개수를 묻는 질문이다([그림 28]). 이 질문 문항 은 C4와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으나 보기항목 ①에 응답한 경우, 바로 G1-1로 이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C4와 다르게 보유개수에 대해 누락할 가능성은 낮은 문 항이다. 더불어 G1-1에 별표로 왼쪽 항목 '있다'일 경우 '보유개수'를 기입하게 되어 있 어 보유개수를 누락하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런데, 통상의 이동지시문은 다음 문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음 문항을 지나쳐 다다음 문항이나 더 떨어진 문항으로 이동 하도록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인지면접 과정에서 발견된 사례 2의 경우도 그렇게 이동 지시문을 이해하고('☞G1-1'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유개수'를 누락하였다.

또한 이 문항에서는 기준시점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현재'라는 문구는 조사표 전반 의 '2018년 12월말 기준56)'인지 '조사시점인 2019년 9월~10월 기준인지'가 모호하다. 따 라서 '현재'는 응답자별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구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즉, 정 확한 시점 제시를 통하여 응답자들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응답하게 함으로써 응답의 정 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⁵⁶⁾ 조사표 표지에도 '2018년 12월 기준'을 명시하였다.

--- < 제 언 > --

■ 이동지시문의 수정 및 문항의 구성 변경

→ 예시)

		해당여부 및 보유 개수	
자체 브랜드	① 있다 ② N-1	<u> 개</u> 보유	
	(2) 없다	☞G2로 이동	

• '현재'시점의 명확한 제시

2) 해외 사업 방식

G4. (2018년 기준) 귀사의 해외 사업 방식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③ 직접수출+간접수출 ④ 수출 없음 ☞G6에 응답 직접수출 ② 간접수출 [직접수출: 해외 시장에 완제품 직접 수출] [간접수출: 부품이나 중간재 판매 후, 매입처에서 제품완성 후 해외수출] ☞ 앞D4 해외 매출이 있는 경우(G3-2에 %가 있는 경우) ①,②,③만 응답 가능, 해외 매출이 0이면 ④ 응답후 G6로 이동 G4-1. (☞G4에서 ①, ②, ③응답한 경우만) 귀사는 해외에 지사나 지점을 설치했습니까? ① 예 ☞G5-1에 응답 ② 아니오

[그림 29] 해외 사업 방식 및 해외 지사나 지점 설치 여부

G4에서는 해외 사업 방식을 묻고 있고 G4-1에서는 해외 지사나 지점 설치 여부를 묻 고 있다([그림 29]). 이동지시문이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데, <표 8>에서 언급한 것과 같 이 후술된 이동지시문(G4의 경우)은 응답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G4-1와 같이 이 동지시문을 잘못 사용하면57) 응답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사례 10의 경우, D4와 G3-2에 서는 미응답하였으나 G4에서 각주의 설명을 읽지 않고 "회사에서 채택한 수출방식에 의 거하여" '① 직접수출'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사례 2의 경우는 G4-1에서 해외지사나 지 점이 없다고 응답하고 G5-1과 G5-2에 모두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응답자들에게 이동지 시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로 이동지시문 및 설명을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G4의 후술된 설명은 질문 본문 문두에 '(D4에서 해외 매출에 응 답한 경우)'로 삽입할 필요가 있고 G4-1의 보기항목 ①의 이동지시문은 삭제 후, 보기 항목 ②에 이동지시문('☞G5-2로 이동')을 삽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⁵⁷⁾ 오히려 이 경우, 이동지시문이 보기항목 ②에 제시되어야 하는데 보기항목 ①에 제시되어 있다.

3) 해외 시장 진출 지역 및 직·가접 수출지역

G5. (☞G4에서 ①, ②, ③ 또는 G4-1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귀사의 해외 시장 진출 지역 혹은 직·간접 수출지역은 어디입니까?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기타의 경우 지역명 기입>

구분	<보기>에서 해당번호 기입 (복수용답)	<보기>
G5-1. 해외 시장 진출(지사 및 지점 설치) 지역은? (G4-1=①인 경우만 응답)	(번호:)	① 미국 ② 일본 ③ 중국
G5-2. 직·간접수출 지역은? (G4=①②③인 경우만 응답)	(번호:)	④ 러시아 ⑤ 동남아시아 ⑥ 유럽 ⑦ 기타()

[그림 30] 해외 시장 진출 지역 및 직·간접 수출지역

G5는 해외 시장 진출 지역과 직·간접 수출지역에 대해 묻고 있다([그림 30]). 각 세부 문항으로 G5-1과 G5-2가 있는데 질문 문항의 배치가 G4의 순서와 반대로 되어 있어서 응답자가 문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응답오류도 발생하였다. 또한 G5-1의 질문 내용 중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포괄적 개념보다 괄호 부분이 더 문항을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 표현인데 오히려 괄호형태로 후술되어 응답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명의 사례58)에서 '해외 시장 진출 지역은?'만 읽고 후술된 '(지사 및 지점 설치)'를 읽지 않아서 해외 지사 및 지점이 없는 경우인데도, 답변하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 <제 언> ----

- G5의 질문 문항 재배치 및 질문 문항 내용 수정
 - → i) 공통 <보기> 항목을 별도로 사전배치 후(H1 처럼),
 - ii) G5-2를 선행질문으로 배치('작·간접 수출지역은 <보기> 중 어디입니까?')
 - iii) G5-1를 후행질문으로 배치하고 '해외 시장 진출' 삭제 후, '해외 지사 및 지점이 설치된 지역은 <보기> 중 어디입니까?'로 변경

4) 해외수출 및 진출과정에서의 애로사항

G6에서는 해외수출 및 진출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이다([그림 31]).

그런데, 이 문항은 G4에서 보기항목 '④ 수출 없음'에 응답한 경우도 응답해야 하는 질문 문항이다. 그러나 G6의 질문 문항은 "향후"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수출을 했거나 수출을 진행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만 응답가능한 질문인 것이다. 따라서 사례859의

⁵⁸⁾ 사례 2, 사례 6, 사례 7

⁵⁹⁾ 사례 8은 "현재 수출이 없고 향후에도 수출 계획이 없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G6. (2018년 기준) 귀사가 해외수출 및 진출과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응답> 2순위 ① 기술력 부족 ② 무역 전문인력 부족 ③ 시장정보 부족 ④ 해외시장 진출 필요자금의 부족 ⑤ 수출관련 절차적 규제 부담(선적, 통관 등) ⑥ 언어 장벽(계약협상, 통번역 등) ⑦ 현지시장 규격 및 인증 획득의 어려움 ⑧ 기업 신인도 부족 ⑨ 기타 (기재:

[그림 31] 해외수출 및 진출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경우처럼 수출 계획이 없는 경우는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내용이다. 물론 사례8은 G4에 서 보기항목 '④ 수출 없음'에 응답 후, 이동지시문(☞G6에 응답)에 따라 G6 질문 문항 을 읽기는 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응답부담만 갖게 되었다. 따라서 G6의 질문내용에 "향후" 계획이 없는 경우도 응답할 수 있게 문구를 수정하거나, 향후 수출계획이 없는 경우는 G6을 미응답할 수 있게 하여 응답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질문의 변경이 필요 해 보인다.

사. 제휴 및 협력 현황

1) 선호하는 협력기관, 협력활동 유형과 도움정도

⑥ 마케팅/판로/유통 ⑦ 브랜드 ⑧	기술개발 ④ 기술 생산/품질 ⑨ 신제 타 <u>(</u>	vol to recorder to the second	디자인 연구개빌	·시설	및	장비	상호(기용
 아래 6개 기관 중 귀사가 선호하는 협력 기 협력활동 유형과 도움정도를 체크해 주십 		<보 기> 에서	각 기관	별 귀	사가	경험	한 제	Ā :
구분	메인 파트너 (2개 선택) 다좌측 5개 기관에서	<위 보기 참조> 귀사가 경험한 제휴 및 협력활동 유형 다협력 경험이 있는		타기관과의 협력활동이 귀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27협력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용답)				
	선택	경우만 용 (보기에서 기 선택	1000	매우낮음	낮음	보통	사하	매아노용
H1-1. 대학과 협력(산학 협력)		(번호 :)	1	2	3	4	5
H1-2.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연구소 등)	100./	(번호 :)	1	2	3	4	5
H1-3. 중소벤처기업과 협력	1순위:()	(번호 :)	1	2	3	4	5
H1-4. 대기업과 협력	2순위:()	(번호 :)	1	2	3	4	5
H1-5. 외국계기업과 협력		(번호:)	1	2	3	4	5

[그림 32] 선호하는 협력기관, 협력활동 유형과 도움정도

H1은 선호하는 협력기관을 선택하고, 협력기관과의 협력활동 유형 및 도움정도를 문 는 질문이다([그림 32]). 복잡한 3중 매트릭스구조로 인하여 응답 오류, 부연설명 이해 오류, 무응답 등의 사례들이 발생하였으므로 다각도의 개선 검토가 필요한 질문이다.

메인파트너를 선택하는 문항을 살펴보면 첫째, 질문 본문의 표현 내용과 표 안의 질 문 내용이 상이해 응답자 간 다른 답변이 가능한 문제이다. 즉 질문 본문에서는 '선호하 는 협력 기관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아래 표 안에서는 '메인 파트너'를 선택하게 하 고 있기 때문이다. '선호하는 협력기관'과 '메인 파트너'는 명백히 다른 개념인데도 동일 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협력기관'이 없는 경우는 답변이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 즉 협력기관의 유무를 묻는 선행질문의 부재로 '협력기관'이 없 는 경우는 무응답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인지면접 과정에서도 "협력기관이 특 별히 없어서 답변할 수 없었다"며 미응답한 사례가 4명60) 발견되었다. 셋째, 메인파트너 로 선택할 수 있는 '협력기관'의 포괄성 문제이다.61) 즉, 협력활동의 대상의 문제인데 정 부, 지방자치단체, 공사, 중견기업 등은 선택할 수도 없고 추가 작성도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그 포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례 2는 "수자원 공사와 공동연구를 하는데, 직 접 선택할 항목이 없어서 '연구기관'을 선택하였다"고 하였고, 사례 4는 "중소벤처기업 부의 공동장비 활용사업으로 대학과 협력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협력'을 중소벤처기 업부와의 협력으로 잘못 보고 '중소기업과 협력'을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더불어, 전문 가 FGI에서는 '중견기업'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넷째, 시점이 불문명하여 발 생한 문제62)인데 응답자 간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한 경우이다. 사례 7은 "2018년 기준일 경우는 협력파트너가 없는데, 2017년 기준으로는 협력파트너가 있어서 2017년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하였고 사례 8과 사례 10의 경우에는 "기준시점이 없어서 과거부 터 모두 고려하여 누적개념으로 작성하였다"고 하였다.

협력활동 유형 및 도움정도에 대한 문항을 살펴보면 메인파트너에 대해서만 협력활 동 유형 및 도움정도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메인파트너 이외에도 협력활동 유형과 도 움정도를 모두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가 직관적으로 불분명한 점이 응답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질문 내용 아래 ※표의 설명63)을 잘 읽어 보면 모두 응답하는 것으 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응답자들이 표 전체를 다 보고나서 읽게 되는 위치에 있어 서 인지하기 어렵고 인지를 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다양한 사례들

⁶⁰⁾ 사례 1, 사례 3, 사례 9, 사례 15

⁶¹⁾ 이 문제(선택할 수 있는 협력기관의 포괄성 문제)는 H2의 질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H2에 대한 설명은 위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였다.

⁶²⁾ H1은 정확한 시점을 제시하지 않아서 응답자별 다른 기준으로 응답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질문 자 체의 오류로 볼 수 있고, 응답자 간 각기 다른 시점으로 응답한 사례들은 오류로 볼 수 없을 것이다.

^{63) &#}x27;※ 메인파트너로 선택한 기관의 협력활동 유형 및 만족도는 반드시 응답'

로 발견되었는데 메인파트너를 2개 작성 후 두 개의 메인파트너에 대해서만 응답한 사 례.64) 메인파트너는 2개 선택했지만 협력활동 유형 및 도움정도 답변은 누락한 사례.65) 메인파트너는 2개 작성 후 협력활동 유형 및 도움정도는 모든 기관에 대해 작성한 사 례66) 등이 있었다.

H1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67)에서도 "표가 너무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서 답변 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고 나머지 사례에서는 모두 오류가 발견되어 응답자들이 응 답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질문 문항은 매트릭스 구조의 해체를 통한 질문의 재구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움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높다'/'낮다'의 보기항목 표현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도움이 크다'라는 표현은 있어도 '도움이 높다'는 표현은 어색하 기 때문이다. 이는 I3-2에서도 동일하므로 함께 고려가 필요하다.

아. 벤처캐피털 및 M&A 현황

1) 벤처캐피털

13. 귀사는 벤처캐피탈(투자조합포함)로부터 투자를 ① 예 ☞13-1 ② 아니오 ☞14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I3-1. (I3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만) 귀사에 투자한 벤처캐피탈(투자조합포함)은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 ① 자금투자 외에는 경영에 그다지 관여하지 않는 등 거의 역할이 없었다. 🖙 14로 이동
- ② 자금투자 외에 벤처기업 경영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였다. 🖙 I3-2로 이동

I3-2. (I3-1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만) 귀사의 벤처캐피탈(투자조합 포함)로부터 도움분야와 도움정도는 어떠십니까?

	(13-1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	벤처캐피탈		The same of the
구 분	도움 여부		귀사	에 도움되는 정도		
	제크(√)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I3-2-1. 경영관리 지도 또는 경영자문		1	2	3	4	5
I3-2-2. 이사회 참여 의사결정과정 감독 관여		1	2	3	4	5
I3-2-3, 제품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또는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지원		1,	2	3	4	.5
I3-2-4. 관련 기술정보 소개 또는 제공		1	2	3	4	5
I3-2-5. 지적재산권/특허권 관련 법률지도		1	2	3	4	5
I3-2-6. 은행/금융 기관소개 알선		1	2	3	4	5
I3-2-7. 필요 전문인력 소개 또는 헤드 헌팅		1	2	3	4	5

*해당 분야의 도움을 받은 경우 '도움여부'에 체크

[그림 33] 벤처캐피털

⁶⁴⁾ 사례 7, 14

⁶⁵⁾ 사례 5, 사례8

⁶⁶⁾ 사례 4, 사례 6, 사례 12, 사례 13

⁶⁷⁾ 사례 4, 사례 6, 사례 12, 사례 13, 사례 10, 사례 11(협력활동 유형 및 도움정도에 모두 응답한 경우 포함)

[3은 벤처캐피털의 투자 경험 여부와 그 역할 및 도움정도를 묻고 있다([그림 33]), 우 선, 조사표 전체적으로 D1을 포함하여 I3, I3-1, I3-2의 4번의 질문에서 '벤처캐피털'이 언급되고 있는데 D1에서는 '벤처캐피털'로 표기되어 있고, I3·I3-1·I3-2에서는 '벤처캐피 탈'로 표기되어 있어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해 보인다. 국립국어원의 규범표기에 따르면 '벤처캐피털'이 올바른 표기이므로 '벤처캐피털'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3과 [3-1의 보기항목 ①과 ②에 모두 이동지시문이 제시되어 있는데, 과도한 이동지 시문은 오히려 응답자에게 응답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3-1'과 '☞[3-2로의 이 동'지시문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삭제가 필요하다. 이는 미국 센서스국의 Morrison 이 제시한 '사업체조사 조사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도 언급된 내용으로 "적절한 지 시문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내용과도 상통한다. 더불어. [3-1 은 보기항목 ①과 ②의 순서를 바꾸고 '☞ I3-2로 이동'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제 언> ----

- '벤처캐피털'로 용어 통일
- 불필요한 이동지시문 삭제 (보기항목의 변경도 고려)

2) M&A 환경 개선

I6. 귀사는 벤처기업의 M&A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 1순위() 2순위(

- ① M&A 전문가 및 중개기관 육성
- ② M&A 매물 정보의 질적/양적 확대
- ③ 기업 가치에 대한 신뢰할 만한 평가시스템 구축
- ④ M&A 절차 간소화
- ⑤ '내 기업이어야 한다'는 기업가의 인식 변화
- ⑥ M&A에 대한 부정적 시각 개선

「그림 34] M&A 환경 개선

I6은 벤처기업의 M&A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이다([그림 341). 보기항목으로 6번까지 제시하고 1·2순위로 응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인 지면접 과정에서 사례 5의 경우에는 "(보유기술) 가치에 대한 평가·인증제 도입"과 "지 분참여 여건 조성"을 추가 의견으로 제시하였고 사례 7의 경우에는 "기업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추가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보기항목의 포괄성 문제 로써 '기타()' 보기항목의 추가로 해결할 수 있어 보인다.

--- < 제 언 > ---

■ 보기항목의 포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기항목에 '기타()' 추가

자. 공정거래 질서 현황

1) 주요 거래처 납품 단가 변동정도

J1. 귀사는 전년도(2018년) 대비 금년도(2019년)의 주요 거래처 납품 단가는 변동이 있으십니까?(V 체크), 변동 되었 다면 어느 정도인지 단가 변동폭(%)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18년도 대 19년 납품단	단가 변동폭(%) ☞납품단가가 인상	
	인상	동일	인하	또는 인하인 경우 응답
J1-1.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소속사에 매출	1	2	3	
J1-2. 대기업에 납품하는 1, 2차 벤더에 매출	(1)	2	3	
J1-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매출	1	2	3	
J1-4. 해외 기업에 매출	①	2	3	

^{*} 주) 단가 변동폭(%) = (2019년도 단가-2018년 단가) / 2018년 단가 × 100

[그림 35] 주요 거래처 납품 단가 변동정도

J1에서는 주요 거래처에 대한 납품단가 변동 및 그 정도를 묻는 질문이다([그림 35]). 여기서도 앞에서 언급된 보기항목의 포괄성 문제가 발견되었다. D4에서 매출이 발생하 는 주요 거래처가 '공사', '연구소', '대학', '지방자치단체'인 사례(8)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미응답하거나 다른 항목에 답변하는 응답오류 사례들69이다. 만약. '기업 가 거래' 만 한정하여 묻는 것이 질문의 의도라면, '기업 간 거래'가 없는 기업(사업체)에서는 다 음 질문 문항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 응답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 로 보인다. J2에서도 동일한 내용이므로 위의 내용으로 갈음한다.

(사례 2)70)

면접원- 납품단가가 인상이 되었네요? 5%?

참가자- 네, 변동이 있어요.

면접원-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소속사에 매출을 작성해 주셨는데...이것은 수자원공사와의

⁶⁸⁾ 주요 거래처 :수자원 공사(사례 2), 연구소와 대학(사례 7, 사례 10), 지방자치단체(사례 6, 사례 15)

⁶⁹⁾ 주요 거래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모두 응답하는 오류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모두 "동일"로 응답 한 사례로써 사례 6, 사례 7, 사례 10, 사례 11, 사례 13의 경우이다.

⁷⁰⁾ 사례 2의 경우는 매출이 모두 '수자원공사'에서만 발생하고 협력사항도 '수자원공사'와만 있는 사례이다.

매출을 말씀하신 건가요?

참가자- 네.

2) 거래기업 간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와 심각성 정도

J3. 귀사는 거래기업간 불공기	성거래 경험 여부와 불공정거래의	심각성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

구분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불공정거래의 심각성 정도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체크(√)	매우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J3-1.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소속사에 매출		1	2	3	4	5		
J3-2. 대기업에 납품하는 1, 2차 벤더에 매출		1	2	3	4	5		
J3-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매출		1	2	3	4	5		
J3-4. 해외 기업에 매출		1	2	3	4	5		

*불공정거래 경험여부는 해당 경험이 있는 경우에 체크

[그림 36] 거래기업 간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와 심각성 정도

J3은 거래기업 간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와 심각성 정도를 문항인데([그림 36]), 이 문 항은 '개인사업자용 조사표'에서는 빠진 질문이다. 그런데, 인지면접 과정에서 개인사업 자인 사례 14의 경우에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거래 시 불공정거 래 경험이 있는데 질문하지 않아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71) '개인사업자용 조 사표'에 '거래기업 간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와 심각성 정도'의 질문 문항 전체를 추가하 거나 '개인사업자 조사표'의 H3의 내용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 론 후자와 같이 보완하면 조사표 질문 문항이 '법인기업용 조사표' K4와는 다른 질문으 로 구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72)

3) 기업 가 거래 시 주요 애로사항

J4는 기업 간 거래 시 주요 애로사항을 묻고 있는데([그림 37]), '기업 관련 애로'와 '금 전 관련 애로'를 개별 고려해야 하는지 혹은 통합 고려해야 하는지 질문의 의도가 불명확 하게 되어 있다. 이는 인지면접 과정에서도 발견되었는데, 개별 고려하여 답변한 사례/3) 와 통합 고려하여 답변한 사례계상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께 고려하여 답변해야

^{71) &#}x27;개인사업자용 조사표'의 H3('경영상 애로사항'으로 법인기업 조사표의 K4에 해당)에 대한 인지면접 중 위와 같이 응답하였다.

⁷²⁾ 인지면접 연구방법 '가. 조사표 구성'에서 언급하였듯이, '개인사업자용 조사표'는 '법인기업용 조사표'에 서 일부 질문 문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질문 문항의 내용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 분석에 용이하게 되 어 있다.

⁷³⁾ 사례 11의 경우로 '금전 관련 애로'에 대하여 별도로 1·2순위를 작성하였다.

J4. 귀사의 기업 간 거래 시 주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기술관련 애로]

- ① 기술 탈취 ② 기술 도용 ③ 인력 유출 ④ 기술 및 원가정산 자료 요구
- ⑤ 비밀 유지 협약 요청에 대한 상대방 기업의 거부 ⑥ 기술 공유 요청 문서화 요구에 대한 상대방 기업의 거부

[금전관련 애로]

- ⑧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⑨ 납품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미지급 ⑦ 구두 발주 및 취소
- ⑩ 검사 및 검사결과(불합격 사유) 미통보 ⑪ 낮은 납품 단가
- ②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지연, 학연 등)

[그림 37] 기업 간 거래 시 주요 애로사항

하는 경우라면 '기술 관련 애로'와 '금전 관련 애로' 문구의 삭제가 필요해 보이고 각각 개 별 고려해야 하는 경우라면 순위작성 칸을 각각 별도로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지면접 과정에서 보기항목의 포괄성의 문제도 발견되었다. 보기항목의 포괄 성과 관련해서 사례 4의 경우에는 "납품대금 지급 연기"를, 사례 12의 경우에는 "설계변 경에 따른 비용부담 강요"를 추가 제안하였으며 사례 7의 경우에는 '기술 관련 애로' 및 '금전 관련 애로'의 보기항목 중 답변할 것이 없어서 무응답 하였고 "계약서보다 빠른 납기일로의 변경 요구" 및 "치열한 가격 경쟁 구조"를 기업 가 거래 시 애로사항으로 추 가 제안하였다. 즉 사례 7의 경우는 기업 간 거래 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기술 관련 애 로'나 '금전 관련 애로'로 볼 수 없는 별도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기항목 의 수정이 필요해 보였다. 즉 '기타()'의 추가항목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번호를 순위 항목에 기입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사례 7)

면접원- J4번 경우는 '귀사의 기업 간 거래 시 주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라고 묻고 있 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애로사항이 없으신 건가요? 기술 관련, 금전 관련?

참가자- 저희 회사하고는...

면접원- 이 부분 전체가?

참가자- 네, 이 부분이 뭐... 제가 봤을 때는...

면접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본 거예요?

⁷⁴⁾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사례 6, 사례 8, 사례 10, 사례 12, 사례 13(사례 7과 사례 15는 무응답 하였고 사례 9와 사례 14는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용 조사표'에는 해당 질문 내용이 없었 다.)

참가자- 네, 그러니까 이건 조금... 거래 간의 애로사항은 없을 수는 없겠죠.

면접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금전 혹은 기술... 이렇게 말씀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 른 애로사항을 말씀해주셔도 되고.

참가자- 기업 간 가장 애로사항은 납기, 아까 얘기했듯이 계약서상은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업에서는 10월 말까지로 해 달라.

면접원- 납기일 변경?

참가자- 네, 근데 계약서상으로 하면 그대로 11월 말까지 해도 되는데 현업에서...

면접원- 앞당겨서?

참가자- 네, 그렇게 해 달라 할 때만 야근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거는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고.

면접원- 그 다음 또 있나요?

참가자-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다른 것보다 경쟁이 심화되니까, 가격 경쟁 때문에 애로가 조금 있죠.

면접원- 가격 경쟁... 기술이나 금전 관련 애로는 아니네요?

참가자- 네, 기술이나 금전 관련은 없죠.

차. 벤처기업 지원제도 현황 및 교육, 인프라, 경영애로사항

1) 벤처확인제도의 혜택 및 벤처인프라 수준, 경영애로사항

조사표의 후반부에 위치하여 응답부담이 가중된 상태임에도 다수의 문항이 매트릭스

항 목	메우 낮음	汝音	보퉁	登号	매우 높음
K1-1. 기술개발 촉진효과	1	2	(3)	4	5
K1-2. 기업 이미지 제고 등 광고효과	1	2	(3)	4	5
K1-3. 세계혜택 효과	1	2	(3)	4	5
K1-4. 우수인터 확보에 유리	1	2	(3)	4	5
K1-5. 입지 선정 시 유리	1	2	(3)	4	5
K1-6. 자금조달 및 투자 유인효과	1	2	(3)	4	5
K1-7. 정부지원제도 참여에 유리	1	2	(3)	4	5
K1-8, 창업 관련 규제 완화 효과	1	2	(3)	4	5

K2. 귀하가 생각하기에 현재 벤처인프라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취약	취약	보통	양호	매우 양호
K2-1,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1	2	(3)	4	5
K2-2. 벤처판련 규제완화	1	2	(3)	4	5
K2-3. 창업 및 기업가적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1	2	(3)	4	5
K2-4.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사회분위기	1	2	(3)	4	5
K2-5. 벤처투자 활성화	1	2	(3	4	5

[그림 38] 응답부담 가중에 따른 일정 응답패턴1(사례 8)

(행렬식 질문) 형태를 포함하고 있어서 응답자들에게 응답부담을 가중하게 되어 일정한 응답패턴을 보이는 사례들75)이 있었다([그림 38], [그림 39]). 따라서 세부 문항별로 문항 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도가 낮은 문항의 경우에는 삭제를 검토하여 응답부담을 경 감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1. 벤처확인제도를 통해 귀사가 받는 혜택은 어느 정도입니까?

항목	매우 낮음	낮음	보통	社会	매우 높음
K1-1. 기술개발 측진효과	1	2	8	4	5
K1-2, 기업 이미지 제고 등 광고효과	1	2	3	4	5
K1-3. 세제혜택 효과	1	2	3	4	5
K1-4. 우수인력 확보에 유리	1	2	3	4	5
K1-5. 임기 선정 시 유리	1	2	3	4	5
K1-6. 자금조달 및 투자 유인효과	1	2	3	4	5
K1-7. 정부지원제토 참여에 유리	1	2	8	4	5
K1-8. 창업 관련 규제 완화 효과	1	2	3	4	5

K2. 귀하가 생각하기에 현재 벤처인프라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취약	취약	보통	양호	매우 양호
K2-1.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1	2	8	4	5
K2-2. 벤치관련 규제완화	1	2	3	4	5
K2-3. 창업 및 기업가적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1	2	3	4	5
K2-4.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사회분위기	1	2	3	4	5
K2-5, 벤치투자 활성화	1	2	8	4	5

4. 귀사는 다음 경영상 에로사항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K4-1, 신기술 개발 애로	1	2	,3	4	5
K4-2, 개발된 기순의 사업화 애로	1	2	-3	4	5
K4-3, 국내 판로개최 에로	1	2	3.	4	5
K4-4. 해외시장 개척 에로	1	2	3	4	5
K4-5. 필요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애로	1	2	3	4	5
K4-6. 자금조단 운용 등 자금관리 에로	1	2	3	4	5
K4-7. 기술유축·디자인 및 상표 도용 애로	1	2	34,	4	5
K4~8. 업계내의 과당경쟁 및 덤핑 에로	1	2	3	4	5
K4-9. 법골, 회계, 세무 관련 지식 부족 애로	1	2	3.0	4	5
K4-I0, 조직관리 애로	1	2	9	4	5
K4-11. 환윤 변동 애로	1	2	300	4	5
K4-12, 특허 분쟁 에로	1	2	19	4	5
K4-13. 각종 규제 에로	1	2	\3°	4	5
K4-14. 산·학·연 간 협력 활동 에르	1	2	3	4	5
K4-15. 불공정한 시장질서 애로	1	2	,3	4	5

[그림 39] 응답부담 가중에 따른 일정 응답패턴2(사례 11)

⁷⁵⁾ 사례4, 사례6, 사례 8, 사례 11, 사례 12

2) 사회적 책임

```
K3-1. 아래 보기 중 귀사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책임은 무엇입니까 ? ( ), (
                                                      ) (복수응답)
 ① 물질 기부/기증
                     ② 재능 기부
                                  ③ 공유가치창출(CSV)*
 ④ 지역사회 봉사활동
                     ⑤ 후원 활동
                                  ⑥ 기타( )
                                                      ⑦ 없음
 * 공유가치창출(CSV):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여 가치의 총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적 활동
K3-2. (☞K3-1에서 ⑦ 응답한 경우만) 향 후 사회적책임을 실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I) al
       ② 아니오
```

[그림 40] 사회적 책임

K3-1과 K3-2는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유무와 향후 실천 계획에 대한 질문이다 ([그림 40]). 해당 보기항목에서 상호배타성의 문제가 여기에서도 나타났는데, 보기항목 '① 물질 기부/기증'과 '⑤ 후원 활동'을 유사하게 느끼는 사례76가 있었고, '② 재능기 부'와 '④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유사하게 느낀 사례77)도 있었다.

사회적 기여활동들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더불어 향후 계획까지 묻고 있다. 이는 응답자나 응답자가 속한 사업체에서 '책임'이라 는 단어에 대해 '의무'로 인식하여 부담감을 갖게 하기보다는 '사회적 기여활동' 정도로 순화하여 긍정적 검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용어 변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⁷⁶⁾ 사례 1, 사례 3, 사례 5, 사례7, 사례8 77) 사례 3, 사례 8, 사례 10

제4장 종합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를 대비하여 조사표를 개선하고 조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조사표의 객관화 및 응답 친화적 조사표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가 정확한 벤처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기여함으로써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벤처기업이 대응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써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FGI를 통해 벤처기업정밀조사 조사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인지면접(cognitive interviewing)으로 응답자와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하여 조사항목에 대 한 응답자의 이해도와 응답과정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FGI가 조사표 전반에 대하여 전문가적 관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맥락 중심의 개괄적인 분석이었다면 이후 실시한 인지면접은 응답자 관점에서 좀 더 세부적인 질문표현의 이 해도 등과 연관된 응답반응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물인 본 연구서의 내용은 항목별 구체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항 목은 최종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항목은 조금 더 추가 검토나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이는 향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세부 문제 해결과 정이나 결과 분석과정에서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 FGI에서 결과로 도출된 주요 내용은 첫째로 응답자 중심의 표현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영학에서는 흔히 쓰는 표현이나 문구일지라도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용어의 변경 혹은 용어의 조작적 정의나 용어 설명 추가의 재검토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로 의식에 흐름에 맞는 질문문항 및 보기항목의 구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전 질문과 후속 질문 문항의 배열이 서로 상응하지 못하여 응답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기항목 간의 경중에 따른 배열을 통하 여 응답자의 이해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보기항목 응답범주의 포괄성 및 상호배타성 문제에 대한 검토이다. 이는 응답자가 응답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 여야 하며 응답자가 응답할 내용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넷째로 다의적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문구나 용어에 대한 검토이다. '관리'와 같이 '경영 관리'로도 이해될 수 있고 '단순 관리 업무'로도 이해될 수 있는 용어들에 대한 세 분화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중복 답변 가능성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 는 중복답변이 가능한 질문형태로의 변경을 통하여 응답자의 응답 가능성 및 분석범위

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로 매트릭스(행렬식) 질문의 재검토를 통하여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응답부담의 경감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된 전문가 FGI의 결과는 인지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프로빙 지침'에 적 용하였고, 이후 실시되는 인지면접에서 응답자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된 전문가 FGI 결과와 프로빙 지침을 통하여 진행된 인 지면접 결과를 통해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제언할 사항들이 도출되었는데 응답자 들의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졌으며 보완적으로 Morrison et al.(2009)이 디자 인 이론과 인지면접 방법을 사용하여 도출한 미국 센서스국의 '사업체 조사 조사표 가 이드라인(18개 제시)'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 첫째, 각종 경영학 전문 용어와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들이 아무 런 설명이나 조작적 정의 없이 나열되어 있어서 응답자는 추측에 의존하여 답변하거나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미응답)들(A2-3, A2-4, B1-6, B2-4, C2, D1, D4, F3, I1, I2, I3)과 사 용된 용어설명이 응답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들(A2-1, A2-2, C1, C2, D2, D3, D4, D5, D6, H1) 등에 대하여 조작적 정의나 설명 보완을 제언하였다. 둘째, 보기항목의 포괄성 과 배타성의 문제인데, 보기항목이 응답자가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제시 하지 못하는 경우(A2-3, D4, D8-1, E3, G6, H1, H2, I6, J1, J2, J4)나 보기항목 간 내용의 유사성으로 응답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경우(C4-2, E3, G6, H1, J4, K3) 등으로 보기항목에 '기타()' 항목을 추가하거나 보기항목 내용 검토를 통하여 유사 항목 간 재 정리를 제언하였다. 셋째, 문항별 기준 시점이 모호한 문제로, G5 문항과 H1 문항에서 시점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하여 응답한 사례들 있었으므로 명확한 기준시점 제시를 제 언하였다. 넷째로, 보기항목의 복수응답 가능성의 검토(B1-1, B2-6-3, E7, G2, H2, J4)를 통하여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질문형태를 변경하여 다양한 응답 사례를 수집·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 질문문항과 보기항목 등에 대하여 내용 수정을 제언(A1, A2-1, B1-3, B1-5, B2-3, B2-4, B2-9-1, C4, D8, G3-2, G5-1, I3-2)하여 응답자 편의성을 높 이고자 하였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첫째, B1-1을 비롯한 이후 질문(B2-6-3-2, B2-9, C4, D8-2, G1-1, G3-2, G4, G4-1, G5-1, G5-2, I3, I3-1)에서 나타난 인지면접 과정에서 도출된 응답오류사 례 및 사업제조사 조사표 가이드라인(Morrison et al., 2009)에 따른 불필요한 이동지시문 의 삭제와 후술된 각주 설명의 보완 및 삭제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둘째, 질문의 형태의 변화에 대한 문제인데, 조사표의 동일한 소목차에 속하는 C1문항과 C2문항에서 는 '인원(명)'에 대해 질문하고 C3문항에서는 갑자기 '구성비'로 질문형태를 변경함으로 써 발생하는 응답부담과 오류사례에 대하여 동일한 '인원(명)'으로 변경할 것을 제언하

였다. 이는 '구성비'에 대해서는 연구목적상 필요하면 조사 후에 분석과정에서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선행질문인 G4(직·간접 해외수출 여부), G4-1(해외 지사·지점 여부)의 질문문항 내용순서에 상반되게 배치된 후행질문 G5-1(해외 지사·지점 설치 지 역), G5-2(직·간접 해외수출 지역)로 응답부담이 가중되고 응답오류 사례가 발견되어 선 후 문항간 배치의 일치를 고려하여 G5 문항의 재배치를 제언하였다. 그 밖에 문항 전체 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질문문항이나 보기항목의 일부 형태 변경(A1, C3, C5-2, F1, G1, H1, H2, J4)을 제안하여 응답오류 발생가능성을 낮추고자 하였다.

이렇게 전문가 FGI와 인지면접을 거쳐 도출된 결과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조사 표'가 좀 더 응답자 친화적 조사표가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것은 더 나아가 다양한 벤처기업 환경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향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를 진행하는데 밑거름으로 작용하여 조사환경 변화를 수용하는 조사기획 및 조사표 개선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보고서가 벤처기업정 밀실태조사 조사표 개선에 대한 완벽한 답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전문가 FGI나 인지면접 과정에서 도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체 조사 조사표 가이드라인(Morrison et al., 2009)'으로 보완함으로써 좀 더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기에 향후 벤처기업정밀 실태조사를 실제로 진행하면서 추가 연구의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전문가 FGI와 인지면접 기법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조사표 개선에 적용하여 벤처기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벤처기업 구성 원의 응답반응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검토하였다는데 그 가치가 있다. 이는 벤처기업정 밀실태조사에서 형식적으로는 응답자의 의식의 흐름을 고려하여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 고 응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하는 질문 형태를 추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응답결과의 질(quality)을 높임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통계 품질(quality)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 기 때문이다. 더불어,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대한 첫 인지면접 사례로써 향후 사업체 조사의 개선과 조사표 검토에 응답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그 결과가 조사의 품질 향상에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의 가능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성재 · 김후자 · 이경자 · 이선옥(2000).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 현문사.
- 김영수·이정민·이재남·엄수지·서옥산(2018),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벤처기업협회,
- 박선희·박현주·박주언(2018). 조사표 평가 방법: 인지면접. 통계개발원.
- 박주언·박현정(2014). 사업체조사 조사표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통계개발원
- 박영실 · 박현정(2012). 조사표 평가 방법론에 관한 최근 동향. 통계개발원
- 박현주 · 이승희(2017). 오차를 중심으로 본 세상을 바꾸는 과학적 설문조사방법. 창지사.
- Gower, A. R., B. Bélanger, and Marie-Josée Williams(1998). Using focus groups with respondents and interviewers to evaluate the questionnaire and interviewing procedures after the survey has taken place, Proceedings of the survey research methods section.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Statistics Canada.
- Groves, R. M., Fowler, F. J., Couper, M. P., Lepkowski, J. M., Singer, E., and Tourangeau, R.(2009). Survey Methodology. John Wiley & Sons, Inc.
- Haraldsen, G.(2003). Searching for Response in Focus Group with Business Respondents. Proceedings QUEST 2003. Statistics Norway.
- Hughes, K. A.(2004). Comparing pretesting methods: Cognitive interviews, respondent debriefing and behavior coding. Census Bureau.
- Polly A. Phipps, Shail j. Butani, and Young I. Chun.(1995). Research on Establishment-Survey Questionnaire Design. Journal of Business & Econmic Statistics Vol 13.
- Tourangeau, R., L. J. Rips., and K. Rasinski. (2000). The psychology of survey response. Cambridge.
- Willis, G. B.(2005). Cognitive Interviewing: A Tool for Improving Questionnaire Design. Thousand Oaks: Sage.

🖢 집필진

- 최준영(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주무관)
- 박선희(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사무관)

연구보고서 2019-19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조사표 개선연구: 인지면접

인 쇄 2020년 5월 18일

발 행 2020년 5월 19일

발 행 인 통계개발원장 전영일

발 행 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

ISSN(Online)

